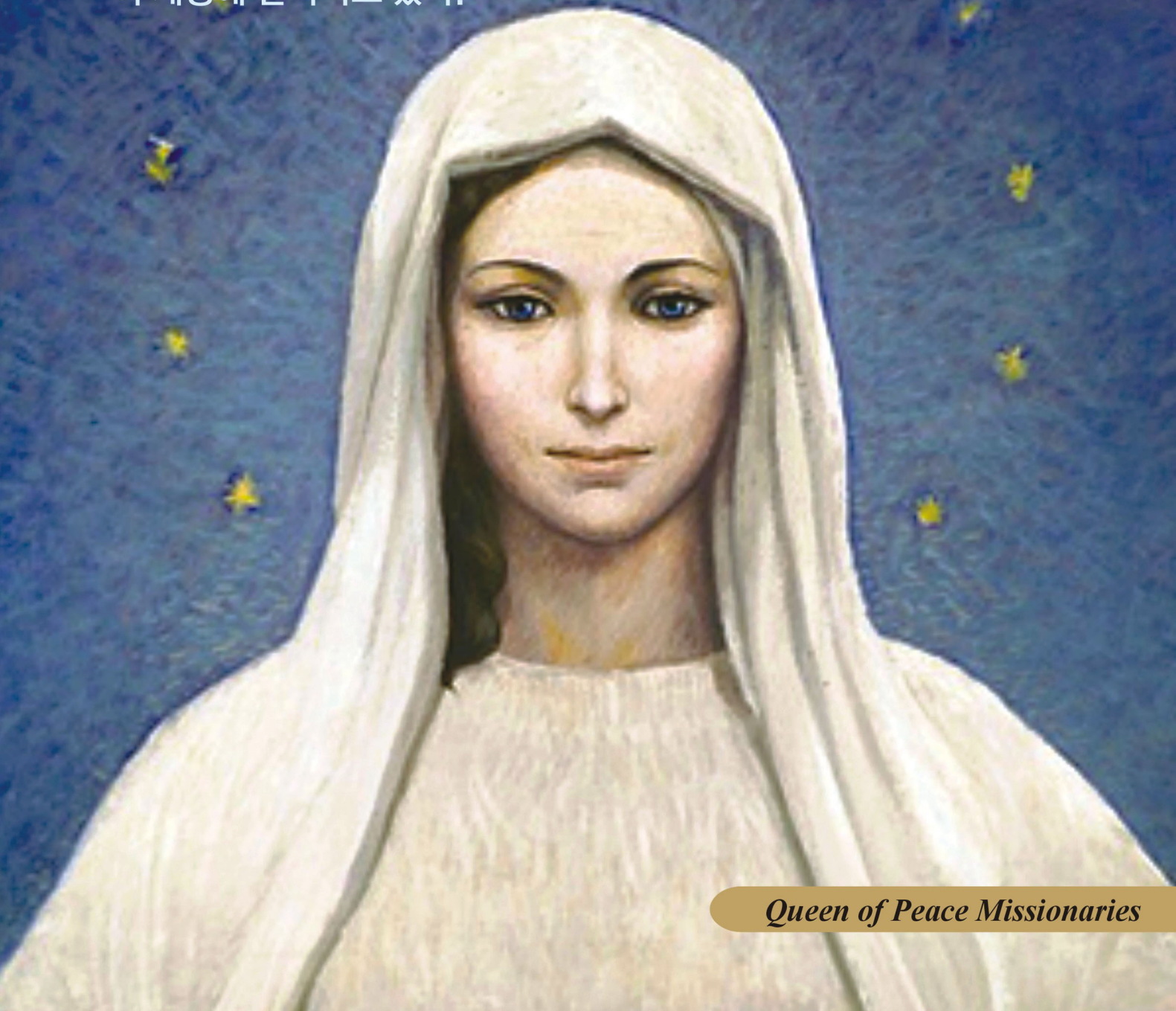


The Queen of Pe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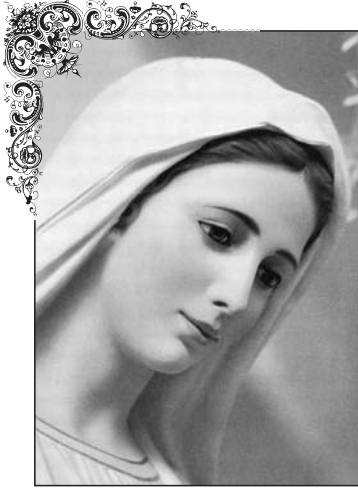
# 평화의 모후

2011.8 / 제61호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 30주년 특집  
"나는 하느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려고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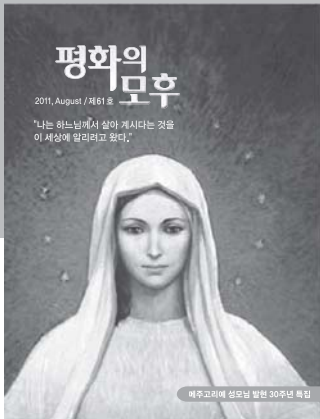
*Queen of Peace Missionaries*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를 너희들과 같이 있도록 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 함께 감사드리자.  
 사랑과 기쁨 안에서 나의 메시지대로 살아가는 너희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구나.  
 많은 이들이 응답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 모두의 마음이  
 불신의 잠으로부터 깨어나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단다.  
 어린 아이들아, 내가 너희들을 영원한 삶으로 이끌 수 있도록  
 나의 티없는 성심에 더욱 가까이 다가와 나오."

2011년 6월 25일 성모님의 메시지

## '평화의 모후' 성모님 발현 30주년 특집



표지 설명 : 야고보 성당의  
 요한 바오로 2세 기념관에 있는  
 메주고리에마을을 축복하시는  
 성모님 그림.  
 이태리의 유명한 조각가  
 까멜레오 뿌줄로의 작품.

- 3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
- 4 **메주고리에에서 만난 성모님**  
백남국 신부
- 7 **나는 하느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려고 왔다**  
회개와 은총의 마을 메주고리에
- 9 **나는 평화의 모후이다**  
발현 첫날 - 일곱째의 날
- 12 **오,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  
요조 조브코 신부
- 14 **성모님께서 주신 5가지의 조약들과 메시지**  
기도 / 성체성사 / 성경 / 단식 / 고해성사
- 16 **나는 이 본당을 선택했다**  
묵주기도 / 미사 / 치유의 예절 / 십자가 경배
- 17 **평화, 평화, 평화 오직 평화를**  
발현산 / 십자가산 / 청십자가
- 20 **발현목격증인들에 대한 과학적 조사보고서**  
마이클 W. 페트라이드
- 22 **메주고리에에 어떤 곳인가**  
나는 이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너희들을 선택했다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 목격증인들
- 26 **메주고리에의 열매**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시간들은 대단히 큰 책임이 따르는 시간입니다  
남그레고리오
- 31 **나눔터 / 메주고리에? 메주가 고리에 달렸나?**  
강 마리아
- 35 **십시일반후원회원 명단**



##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

-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의 구현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와 어머니 마을을 봉헌합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신부님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 33일 봉헌기도를 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가정을 위하여...
  -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소서.
  - 성모님, 마약에 중독된 00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해주세요.
  - 어머니의 대장암 수술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 성모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주님의 도구로 써주소서.
  - 자녀들에게 영육간의 건강과 직장을 허락하여 주소서.
  - 성모님, 61차 순례자들에게 은총내려 주소서.
  -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잘 참아내는 인내를 주십시오.
  - 남편에게 건전한 직업을 허락하여 주세요.
  - 극심한 알콜 중독과 용기가 없어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영혼을 위하여...
  - 아이들이 하느님의 사랑과 보호안에서 영적으로 자라도록 도와주소서.
  - 평화의 모후선교회가 새롭게 태어나 빛을 비추어 주길 청하며...
  -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가족과 같이 살아 갈 수 있도록 은총 주소서.
  - 성모님, 암과 투병하고 있는 000형제와 가족들을 돌보아 주소서.
  - 성모님, 동생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천주교에 입교하도록 빌어 주소서.
  - 00가 대학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건강을 청합니다.
  -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성모님께 감사드리며 더 큰 사랑과 인내를 주소서.
  -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건강하고 평화롭게 좋은 일하며 지내게 해주세요.
  - 제 자신의 성화와 죄인들의 회개와 연옥 영혼들의 빠른 승천을 위하여...
  - 두아들이 서로 사랑과 믿음과 확신으로 변화되길 주님, 성모님 인도해 주세요.
  - 불법이 된 저희 가족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안에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소서.
  - 일본 지진으로 죽은 모든 영혼들과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 저희 공동체가 예수님의 성령으로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연옥의 불쌍한 영혼들과 저희 죄로 인하여 태어나지 못한 태아들의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 아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심어 주시고 성체의 거룩함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 메주고리에 성모님,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 온 세상 사제들과 모든 수도자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모든 일에 축복 주시길 기도합니다.
  - 성모님, 딸의 영육간의 건강을 빌어주시고 독립하여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청하나이다.
  - 저의 4자녀의 영육간의 건강함과 튼튼한 사랑의 소유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 경제적으로 힘든 때에 가족과 집을 지키도록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셔서 감사와 찬미드립니다.
  - 어머니가 평생 동안 상처입고, 상처 준 모든 이를 용서할 수 있는 은총을 간절히 청하나이다.
  - 아들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과 은총을 주시고, 모든 악의 공격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소서.
- 
- 7월 메주고리에 순례 때에 모든 기도지향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는 목격자 비스카에게 기도지향들을 전달하여 성모님의 축복을 청했습니다.
  - 지면상 이곳에 올리지 못한 모든 기도 지향들도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신부님께서 미사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 메주고리예에서 만난 성모님

백남국 요한 신부

저는 지난 5월에 평화의 모후 선교회를 통하여 메주고리예로 기도순례를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메주고리예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본당 신자들중에 순례를 가시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도신부로 함께 갔다 왔습니다.

저는 순례를 가면서도 메주고리예가 어떤곳인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의 발현사실이 저에게 성모신심을 더 증진시켜준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성모님의 발현이 우리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주고리예에 대해서는 단지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곳이고 지금도 목격증인들을 통해 계속 발현이 진행되는 곳이라는 정도의 이야기만을 알고 있었고, 메주고리예가 위치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라는 나라에 대해 인터넷에서 읽어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메주고리예 순례를 다녀온 지금은 이 순례의 기회를 마련해주시고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많은분들이 메주고리예를 알고 순례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메주고리예에 머무르는 동안 많은 신앙의 위로와 기쁨을 맛보았고, 그곳에서 제 신앙생활을 생기있게 만들어 줄 영적인 힘을 많이 얻어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현존하시는 성모님께 대한 제나를 대로의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물론 이 체험이 제 신앙

생활의 생기를 북돋아 준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니었지만 먼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기보다 저의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메주고리예에서 보내는 하루 일정은 매일 아침에는 한국 순례자들과 드리는 한국말 미사로 시작하여 오후에는 메주고리예 본당에서 드리는 목주기도와 저녁미사, 그리고 성시간을 지내고나면 하루 일정이 지나갔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동산과 십자가산을 오르며 기도하거나, 한때는 마약중독자였으나 약은 전혀 쓰지않고 노동과 기도를 통해서 치유된 젊은이들의 공동체를 방문하여 그들의 체험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발현을 목격했던 증인들의 증언을 듣는 등, 매일 매일이 하느님과 성모님의 품안에서 쉬는 피정과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발현 당시 6명의 목격증인들 중의 한사람인 이반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초대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이반은 아직도 매일 저녁 성모님의 발현을 본다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는 시간이 되면 순례 온 신부님들을 자기 집 경당으로 항상 초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날 저녁, 말레이시아 신부님, 나이지리아 신부님과 함께 우리의 가이드 역할을 하던 마을 여자분을



## 성모상의 얼굴이 살아있는 성모님의 얼굴로 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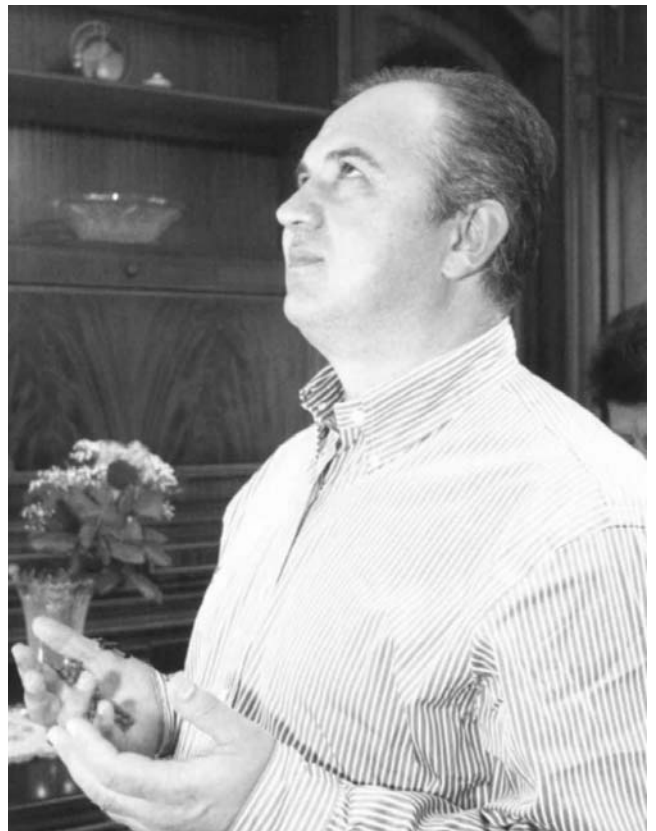
따라 이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가면서도 사실 내심으로는 그 초대를 별로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니다. 도착하여 집안으로 들어가니 집입구에 조그마한 경당이 있었고 이미 20여 명 정도의 신부님들이 와 계셨습니다.

경당 중앙에는 성모님이 모셔져 있었는데 그 앞에서 모두 장궤를 하고 영어와 크로아티아어로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 앉아서 영어로 묵주기도를 따라 하였으나 제 영어실력이 부족하여 다른 신부님들의 기도 속도를 따라가기가 힘들어져 그냥 조용히 앉아서 성모상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셔져 있는 성모상의 모습은 메주고리예에서 보던 다른 성모상과는 달리 동양적인 얼굴을 한 성모상으로 크기가 80-90cm 정도 되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목격증인 이반이 들어와서는 성모상 앞에서 장궤를 하고, 성모상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입술을 조금씩 움직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성모님께서 발현하셔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성모상을 바라보았는데, 그 순간 저는 아주 특이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모상에서 빛살 무늬의 광채가 계속해서 퍼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주위에 계신 신부님들의 얼굴을 쳐다보았으나 다른 신부님들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마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성모상을 계속 바라보니 성모상의 얼굴이 살아있는 성모님의 얼굴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모상의 얼굴에서 볼 부분이 빨갛게 변하더니 다음은 입과 눈 주위가 미소를 지으시는 것처럼 변하시고는 다음에는 성모님의 입술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주위의 신부님들을 살펴보았으나 그분들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함도 없는 것을 보고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살아 계신 것 같은 성모님의 얼굴만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그 얼굴은 본래의 성모상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반이 장궤에서 일어나 앉으며 성모님께서 발현하시고 떠나 가셨다면서 일반적인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제가 영어가 부족해서 다 알아듣지는 못하였으나 대략 "우리가 묵주기도를 할 때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와 계신다." 것과 "우리들이 여기에 와서 많은 삶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 성모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 는 것과 우리들이 가져온 성물들과 편지들에 대해서 축복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나와서 한 시간 동안을 혼자서 걸어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성모님을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좀더 깊이 생각해보니 저는 성모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너무 기쁘기도 하고 왜 성모님께서 저에게 그 처럼 살아있는 모습으로 다가 오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며 걸어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체험이 "메주고리예"에서 제 신앙생활의 생기를 북돋아 준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특이한 체험을 하고 기쁘기는 하였으나 이 체험이 제 마음속에 그리 오래 남아있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날 밤까지는 제 마음이 설레고 마냥 기뻐했으나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 평소와 똑같은 느낌뿐이었습니다. 마치 어젯밤 꿈에서 성모님을 본 것과 같은 느낌 외에는 더 이상 감흥이 없었습니다. 이 체험보다는 오히려 지금까지도 저에게 큰 감흥으로 다가오고 제 신앙생활에 활력을 주는 요소가 되는 것은 "메주고리예"에서 체험했던 기도와 믿음의 뜨거운 열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메주고리예를 전해주고 싶은 이유도



발현 목격증인 이반

## 마을 전체를 덮고있는 평화와 거룩함의 기운

그곳이 우리에게 기도의 힘과 기쁨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진정한 평화가 나오고 평화가 어떤것인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마을 전체를 덮고있는 평화와 거룩함의 기운, 20개 정도의 고해소 앞에 끊임없이 길게 늘어서 있는 고해자들의 진정한 참회의 마음,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들어선 성당에서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의 현존하심을 느끼면서 몇 시간 동안이나 드리는 미사와 묵주기도와 성시간의 찬미와 열기는 저에게 신선한 감흥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나면 발현산과 십자가산을 찾아 올라가는 저희 일행들의 기도와 열기, 야외 벤치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들의 얼굴에 깃든 평화로움들을 보면서 제 신앙의 반성과 새로운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직접 보이지는 않으셨지만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참회 속



에... 진실한 기도 속에... 이웃의 평화로운 얼굴속에 계심을 느끼고 왔습니다.

메주고리에는 저희 일행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학교였으며,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평화를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 순례를 통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기쁨과 힘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되었습니다. 또한 메주고리예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 너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성모님의 끝없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

랍니다. **M**

〈2003년 7월 평화의 모후 선교회 소식지 '메주고리예' 제 18호의 '목자의 소리' 에서〉

## 믿지않는 이들에게 주시는 성모님의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내아들 예수님과 일치를 위한  
힘들고 고통스러운 단계로 너희를 부른다.  
정화를 위하여 온전한 죄의 인정과  
고백을 하라고 청한다. 깨끗하지 않은 마음은  
내 아드님 안에 머무를 수도 없고 함께 할 수 없다.  
깨끗하지 않은 마음은 사랑과 일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깨끗하지 않은 마음은 옳고 정의로운 일들을 할 수 없으며,  
깨끗하지 않은 마음은 주위의 이웃들과, 아직 하느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는 모범이 될 수 없다.  
나의 자녀인 너희가 기대와 소망과 열정으로 가득차 내 곁으로 가까이 있으니,  
나는 착하신 성부께서 내 아드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시어 너희 깨끗한 믿음을  
너희 안에 심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  
나의 자녀들아, 나를 따르며 함께 나아가자.

2011년 7월 2일 미리아나에게 주신 성모님의 메시지

사진 / 발현 목격증인 미리아나





# 나는 하느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고자 왔다.

## 회개와 은총의 마을 메주고리에

1981 6월 24일 오후, 공산치하에 있던 유고슬라비아 (현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중서부 산골의 작은 마을에 6명의 10대 소년 소녀들에게 성모님께서 강렬한 빛에 둘러싸인 (묵시록 12장의 태양을 입은) 모습으로 발현하시었다. 그 다음 날인 6월 25일 성모님께서 슬픈 얼굴로 "평화, 평화, 평화, 하느님과 사람들 사이에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시었다. 성모님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오셨나요?" 라고 묻는 목격증인들에게 "나는 평화의 모후이다. 나는 하느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고자 왔다."라고 말씀하셨다.

성모님께서 6명의 발현 목격증인 아이들에게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정화의 시기가 왔을 때 겪을 어려움을 예언한 10가지 비밀을 주셨다. 6명의 발현 목격자중 야콥, 이반카, 미리야나는 10가지의 비밀을 받은 후 성모님의 매일 발현이 끝났다. 그 후부터는 야콥과 이반카에게는 발현 기념일과 성탄절, 미리야나는 3월 18일 생일날과 그리고

매달 2일에 성모님의 발현을 보고 있다. 마리아, 비스카, 이반은 현재 모두 9가지의 비밀을 받았으며 지금도 성모님의 발현을 매일 보고 있다. 성모님께서 1991년부터 마리아 파블로비치를 통하여 매월 25일에 세상의 모든 이들을 위한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 파티마 성모님의 발현 목격증인 중의 한 사람인 루시아 수녀는 "파티마에서 주신 성모님 예언의 메시지는 메주고리에에서 완성될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 동안 메주고리에는 전 세계에서 수천 만 명의 순례자들과 더불어 각국의 수 많은 추기경과 주교와 사제와 수도자들이 순례를 왔다. 그들은 메주고리에 순례를 하면서 자신들의 거룩한 성소에 희망과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음을 체험을 통해 증언하고 있다. 또한 수 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자신들의 성소를 발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제와 수도자가 되었다. 메주고리에는 하느님께 대한 굳은 믿음과 사랑을 확신시켜 주는 어머니가 계시는 곳이다. 오늘도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

## 성모님 발현 30주년 특집

님께서는 "기도, 기도, 기도하여라. 너희들은 회개하고 변화되어 하느님과 화해하여야 한다. 그분을 너희들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한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 고맙다."라고 말씀 하신다.

나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 본당을 선택했으며 직접 인도할 것이다. - 1984년 3월 1일 -



성모님의 발현초기 성모님 발현소식을 듣고 메주고리예를 찾아 온 순례자들

세계의 모든 성당의 미사 때와 또 감실 안에 예수님이 현존하시고 성모님이 계시는데 왜 메주고리예에게까지 와야만 하는가? 이 물음에 목격증인 중의 한 사람인 마리아 파블로비치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곳에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려 주시기 때문 입니다." 오늘날 수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신앙의 목마름은 이 세상에 교회가 없고 성체와 감실이 없어서 생기는 갈증이 아니다. 성모님께서 "미사는 하느님이 주시는 큰 은총이며 특히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은 가장 큰 기적이다. 나의 발현과 미사가 같은 시간에 있다면 너희들은 미사를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성모님께서 30년 동안 매일 발현하시면서 말씀하신 -미사, 성체성사, 고백성사, 성경 읽기, 회개, 변화, 기도, 단식, 용서- 메시지는 그동안 교회에서 들어 보지 못한 새로운 말이 아니다.

문제는 듣지 못하고 열리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에 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속에 타협하며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살아간다. 성모님은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불신과의 갈등은 더욱 깊어져 상처 받고 병들은 자녀들의 마음을 엄마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 치유해주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시며 우리들이 하느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신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탄은 강하다. 그러므로 나는 사탄의 영향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의 기도를 봉헌하라고 요청한다. 너희의 삶으로 증거하며 세상의 구원을 위해 너희 생활을 희생하여라... 아이들아, 두려워 말아라. 너희가 기도한다면 사탄은 조금이라도 너희에게 해를 입히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느님의 자녀이고 하느님께서 너희를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기도하여라. 그리고 사탄에게 너희가 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표시로 목주가 항상 너희 손에 있게 하여라." -1989년 2월 25일-



이곳에서의 발현이 끝나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발현하지 않을 것이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이 메주고리예에서 발현하시는 목적은 인류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계획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셨다. 메주 고리에 본당과 목격증인들, 그곳을 찾아오는 순례자들은 성모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들없이 이세상을 구원할 수 없단다.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초대하는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어 고맙구나." 오늘날 이 세상은 더 이상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질만능주의에 젖어 살고 있다. 현대인들은 생명의 나무를 침범하지 말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복제 인간을 만들고 있다(창세기). 성모님께서는 이제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조차 어리석은 일이 되어 버린 이



세상을 향해 회개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징벌이 내리게 되고 그때가 되면 이미 회개할 시간이 없게 된다고 경고 하셨다. "나는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이 회개하고 변화되어 하느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당부하러 왔다. 이곳에서의 발현이 끝나면 나는 더 이상이 세상에 발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다. 또한 어머니의 사랑으로 바로 지금이 우리들의 구원과 회개를 위하여 기도하고 변화되어야 하는 시간이라고 애타게 말씀하신다.

**3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성모님께서 발현하지 않으셨던 날은 오직 5일뿐이었다.**

성모님께서서는 1982년 1월 15일부터 성당 제대 옆에 있는 작은 방에서 아이들에게 발현하셨었다. 1985년 4월, 교구장 주교의 요청에 따라 발현의 한 장소였던 이 작은 방을

떠나야 했다. 발현이 시작된 때부터 지금에 이르는 3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성모님께서 발현하지 않으셨던 날은 고작 5일뿐이었다. 성모님의 발현 시간은 어떤 때는 2분 정도 혹은 한 시간 동안 발현하실때도 있었다. 성모님께서 특정한 시간의 발현을 약속하지 않으셨을 때, 어느 누구도 그분이 언제 어디에서 발현하실지 예측할 수 없었다. 간혹 개별적인 발현도 하셨지만 다른 아이들에게는 전혀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신 적도 있었다. 성모님은 6명의 목격 증인들에게만 발현하신 것만이 아니라 나이나 국적, 직업이나 교육을 막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발현하셨다. 이 모든 것들은 성모님 발현은 시간이나 장소와 상관없이 없으며 목격 증인이나 순례객들의 간절함과 기도보다는 오로지 성모님의 의지에 따라 이루지는 것임을 확증해주고 있다. **M**

## 나는 평화의 모후이다. 발현 첫날 - 일곱째의 날

**발현 첫째 날 : 그분이 왜 이곳에 오셨을까...**



1981년 6월 24일, 오후 6시쯤경 일이다. 팟브르도(발현 언덕)로 알려진 크르니카 언덕에서 이반카 이반코비치, 미라야나 드라기체비치, 비즈카 이반코비치, 이반 드라기체비치, 밀카 파블로비치 라는 5명의 아이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팔에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을 목격한다. 그 아름다운 여성은 한마디 말도 없이 아이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라는 손짓을 보냈다. 아이들은 그분이 성모님이라는 것을 즉각 알아차리지만 놀랍고도 두려웠던 나머지 차마 가까이 가지 못했다

**발현 둘째 날 : 하느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다음 날인 1981년 6월 25일, 그분을 다시 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아이들은 전날 성모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장소에서 다시 만나기로

한다. 그 때 갑자기 아이들 앞에 섬광이 번쩍였는데 고개를 들어 언덕 위쪽을 쳐다보자 아이들 앞에 다시 성모님께서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번에는 그분의 팔에 아기는 없었다. 그분은 미소를 지으시며 기뻐하셨는데 그 모습이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우셨다. 그분은 다시 아이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오라고 손짓을 하셨다. 아이들은 용기를 내어 그분을 향해 올라갔다. 아이들은 즉시 무릎을 꿇고 주님의 기도, 성모송 그리고 영광송을 바치기 시작했다. 성모님께서서는 다섯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 성모님 발현 30주년 특집

바치셨지만 성모송은 바치지 않으셨다. 기도가 끝나자 성모님께서는 아이들과 대화하기 시작하셨다. 이반카는 두 달 전에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여쭙 보았다. 또 다른 여자 아이인 미리야나는 자신들이 성모님 발현을 목격했다고 하면 일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미쳤다고 말할 테니, 자신들을 증명할 만한 표징을 달라고 성모님께 요청했다. 성모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나의 천사들이! 하느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이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아이들 곁을 떠나셨다. 성모님께서 떠나시기 전 다음날에도 다시 뵈을 수 있는지 아이들이 물었을 때, 성모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응답해 주셨다. 목격 증인들은 그 만남 전체를 말로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한다. 그날 모였던 6명의 아이들은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목격증인들로 선택되었다. (그날 발현 언덕에 가지 않았던 이반 이반코비치와 밀카 파블로비치 대신 마리아 파블로비치와 야콥 출로가 선택되었다.)

**발현 셋째 날 : 나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이다.**



발현 삼일째인 1981년 6월 26일, 아이들은 성모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그 시간이(오후 6시경)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다시 같은 장소를 향해 갔다. 아이들은 성모님을 뵈고자 하는 열망이 두려움과 뒤섞여 있긴 했지만, 성모님을 뵈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매우 행복해했

다. 이러 한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성모님께서 그들을 잡아당기는 내적인 힘을 느꼈다. 발현 언덕을 향해 가던 아이들 앞에 갑자기 강한 빛이 세 번이나 번쩍었다. 그 빛은 성모님께서 현존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징이었다. 이 날 성모님께서 첫날과 둘째 날보다 더 높은 곳에서 발현하셨다. 그러다가 갑자기 성모님께서 사라지셨는데, 아이들이 기도를 시작하자 다시 나타났다. 그분은 밝은 표정에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계셨으며 너무나 아름

다운 모습이셨다. 아이들이 집을 나설 때, 몇몇 여자 노인들이 사탄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성수를 가져가라고 아이들에게 충고했다. 성모님께서 발현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성수를 가져온 비스카는 성모님의 모습을 향해 성수를 뿌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당신이 복되신 어머니시라면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속히 물러가라!" 성모님께서는 미소진 모습으로 비스카의 모습을 바라 보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남아계셨다. 그 때 미리야나가 그분의 이름을 여쭙 보자 성모님께서는 "나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이다!" 라고 대답하셨다. 같은 날 아이들이 발현 산에서 내려온 후 성모님께서는 다시 한 번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나 이번에는 마리아에게만 말씀하셨다. "평화, 평화, 평화, 그리고 오직 평화만이!" 마리아는 성모님 뒤편에 십자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때 성모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하셨다.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어야 한다!"

**발현 넷째 날 : 나의 천사들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1981년 6월 27일 성모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세 차례나 나타나셨다. 이때 아이들은 성모님께 온갖 질문을 던졌고, 성모님께서는 이에 모두 답해주셨다. 사제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물었을 때 성모님께서는 "그들은 강한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야 한다!" 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마약을 복용한다고 자신들을 비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야콥과 미리야나가 다시 한번 표징을 보여 달라고 성모님께 요청했다. 성모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응답하셨다. 헤어지기 전에 아이들은 다시 오실 수 있는지를 물었고, 성모님은 그러겠노라고 확인해



주셨다. 팟브르도를 내려오는 도중에 성모님께서는 다시 한번 더 모습을 드러내시며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작별 인사를 하셨다. "나의 천사들이여, 하느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평화로이 돌아가거라!"

**발현 다섯째 날 : 사제들은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하며...**



발현 초기의 요조신부님과 목격증인들

1981년 6월 28일 아침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벌써 많은 군중들이 곳곳에서 모여들기 시작했다. 정오쯤에는 대략 1만 5천여 명의 인파가 운집해 있었다. 같은 날 메주고리에 본당 사제 요조 조브코 신부는 그동안 아이들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조사했다. 성모님께서는 언제나 발현하시던 그 시간에 아이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아이들은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질문을 던졌다. 비스카가 물었다. "사랑하는 성모님, 저희와 저희 신부님들에게 무엇을 바라시나요?" 성모님께서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굳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사제들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날, 성모님께서는 여러 차례 발현하셨다. 한번은 아이들이 성모님께 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뵈을 수 있는 본당의 성당에서 발현하시지 않는지를 여쭙 보았다. 성모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대답하셨다. 비록 군중들이 아이들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졌고 날은 찌는 듯이 더웠지만, 아이들은 자신들이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느꼈다고 한다.

**발현 여섯째 날 : 사람들이 굳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기 바란다.**

1981년 6월 29일 사람들은 의학적인 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 아이들을 모스타르로 데리고 갔다. 그러나 아이들의 진찰을 마친 의사는 "이 아이들은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데려온 사람들이 미친 것 입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 날 발현 언덕을 찾은 군중의 수는 이전의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았다. 아이들이 언제나처럼 그 장소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자 성모님께서 발현하셨다. 그 때에 복되신 어머니께서는 "사람들이 굳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기 바란다."고 요청하셨다. 그 날 아이들을 따라다니면서 관찰하던 한 의사가 발현 중에 성모님을 만져보기를 원했다. 아이들이 그 의사의 손을 성모님의 어깨부분으로 이끌자, 그녀는 따끔거리고 울렁거리는 감각을 느낄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 의사는 비록 무신론자였지만 자신이 느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곳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같은 날 다니엘 셰트카라는 아이가 기적적으로 치유되었다. 그 부모는 특별히 아이의 쾌유를 기원하기 위해 아이와 함께 메주고리에 왔던 것이다. 성모님께서는 부모가 확고한 믿음으로 늘 기도하고 단식하면, 치유가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 아이의 부모는 성모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였고 그 아이는 치유 되었다.

**발현 일곱째 날 : 성모님과 함께 바친 7번의 주님의 기도**

1981년 6월 30일, 두 명의 공산당원 여인들이 목격 증인 아이들에게 차를 타고 같이 가자고 제안했다. 그들은 성모





## 성모님 발현 30주년 특집

님께서 발현하시는 곳에서 아이들을 멀리 데리고 가서 발현 시간이 지날 때까지 아이들을 붙들어두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발현산에서 아이들이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도 발현 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차에서 내릴 것을 재촉하는 성모님의 내적인 부르심을 받았다. 아이들은 곧바로 차에서 내려 기도하기 시작했고, 성모님께서 발현산 방향에서 - 약 1km가 훨씬 넘는 거리에서- 아이들을 향해 가까이 다가 오셔서 아이들과 함께 주님의 기도를 7번 바치셨다. 그래서 결국 그 공산당원들의 계략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

이후 공산당원 경찰들은 아이들과 순례자들이 발현산으로 가는 것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아이들과 주민들조차도 발현산에 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성모님께서 아이들의 집안이나 야외등의 다른 장소에서 계속 발현하셨다. 아이들은 더 큰 신뢰를 갖고 성모님을 믿고 열린 마음으로 성모님과 대화하며 가르침과 메시지들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이런 상황에서 성모님 발현은 1982년 1월 15일까지 계속되었다. **M**

# 오,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

## 발현을 믿지 않았던 요조 신부와 성모님



발현 초기 성당에서 마을 주민들과 요조신부에게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목격증인들



조기 발현 당시 메주고리에 본당의 주임이었던 요조 조브코 신부는 성모님 발현을 믿지 않았다. 성당 감실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미사만 끝나면 산으로, 들로 달려가는 신자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만류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을 신자들은 목격증인들을 따라 성모님의 발현이 있는 팻브르도 산으로 몰려 가곤 하였다. 어느 날 성당의 감실 앞에서 성경을 읽고 있던 요조 신부에게 강력한 내적 음성으로 "지금 성당 밖으로 나가서 아이들을 보호하라."는 성모님의 말씀이 들려왔다. 그 즉시 밖으로 뛰어 나간 요조 신부는 저 멀리서 경찰에 쫓기고 있는 아이들을

발견하였다. 아이들은 요조 신부를 보고 뛰어와서 "신부님,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공산 경찰들이 저희를 잡으려고 해요."라고 다급하게 도움을 청했다. 요조 신부는 그 아이들을 사제관에 숨겨 주었다. 경찰들이 "신부님, 아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보셨습니까?" 하고 물어 보자 요조 신부는 아무 말 없이 얼굴을 산쪽으로 돌렸다. 경찰들은 "이 아이들이 또 저 산으로 갔구만!" 하며 뛰어갔다.

### 빛속에서 오신 성모님

어느 날 목격증인 야콥은 "요조신부에게 저녁에 마을 주민들과 함께 성당에 모이라고 전하여라." 하시는 성모님의 말씀을 들었다. 야콥은 "성모님, 집앞을 지키고 있는 경찰들 때문에 한발자욱도 나갈 수가 없는데요." 하고 말씀드렸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다. "기도하여라." 야콥이 무릎을 꿇고 기도 한 후 창가에서 바라보니 야콥이 산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집 앞을 지키고 있던 경찰들이 갑자기 문앞에 앉아서 졸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야콥은 창문을 넘어 성당을 향해 뛰어 갔다. 그리고 요조 신부에게 성모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요조 신부는 성당 제대 밑에 야콥을 숨겨두고 마을주민들에게 성당으로 모이라고 했다. 그 날

저녁 마을 주민들은 성모님의 메시지를 듣고 성당에 모였다. 요조 신부는 제대 밑에 숨어 있던 야콥을 안아서 제대 위에 올려주었다. 야콥은 "성모님께서 매일 저녁 성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라고 전했다. 어디선가 목주기도가 시작되었다.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요조 신부도 주민들과 함께 기도했다. 그런데 목주기도를 하던 요조 신부는 제대 맞은 편 성가대 쪽에서 빛속에서 제대쪽을 향해 오시는 성모님의 발현을 목격하고 순간적으로 무릎을 꿇었다. 성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고 모두 기도를 멈추고 요조신부를 바라보았다. 얼마 후, 성모님의 발현이 끝났을 때 요조신부는 "오,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 당신은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라는 노래를 불렀다. 마을 주민들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함께 성가를 부르며 성모님께 찬미의 인사를 드렸다. 요조 신부는 성모님 발현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게 되었다. 발현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막으며 회의적이었던 요조 신부는 그후부터 6명의 목격증인 아이들을 지켜주는 보호자가 되었다.

### 강제 수용소에 투옥된 요조신부

그 당시 마을 사람들이 성모님의 발현을 보기 위하여 산과 성당으로 몰려다니자 공산당원인 경찰들은 요조 신부를 아이들과 함께 마을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죄목으로 잡아갔다. 그리고 성모님의 발현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면 풀어 주겠다고 했지만 이미 성모님 발현에 대하여 굳은 확신을 갖고있던 요조 신부는 이를 거절했다. 그들은 요조 신부를 감옥에 가두고 모진 고문을 하였다. 요조 신부는 얼마나 심한 고문을 당했는지 이빨이 빠지는 고문을 받았지만 어떤 고문에도 절대 굴하지 않고 성모님의 발현이 사실임을 전했다. 결국 요조 신부는 3년형을 선고 받고 강제 노동소의 독방에 수감되었다.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교도관들의 증언에 의하면 분명히 잠가두었던 감옥문이 그 다음날에 보면 열려 있다든지, 전기불이 없는 감옥에서 한밤중이 되면 강렬한 빛이 흘러 나오곤 했다. 8월 말경 주일, 비스카와 마리아, 야콥에게 성모님께서 발현하셨다. 성모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찬미" 하고 발현하시었다. 비스카는 요조 신부님의 감옥 방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성모님께 말씀드리자 성모님께서 "그 일은 모두 사실이다." 라고 대답해 주셨다고 한다. 한편, 경찰서에서 심한

고문을 받고 걸음도 걷지 못할 정도로 피투성이가 된 요조 신부를 본 마을 주민은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이러한 소식을 알게 된 알게 된 서방국가들의 탄원으로 18개월만에 석방된 요조신부는 그 후부터 온 세계에 메주 고리에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성모님의 사도가 되었다. 요조 신부는 전 세계 유명인사 2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 평화의 모후께...

메주고리에에 있는 야고보 본당의 신자들은 요조신부가 고문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매일 성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 시인이며 작가인 스탕코 바실리 신부도 공산정권에 의해 감옥에 갇혀서 무수한 어려움과 고통을 받았다. 스탕코 바실리 신부는 요조신부의 어려움과 수감생활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마음으로 성모 성가를 작곡하였다. 3절로 구성된 이 성가는 오늘 날 메주고리에 성가로 널리 알려진 것이며 야고보 성당의 입당 성가가 되었다. 한국어는 시카고 마리아 센타의 한명수 아오스팅 회장이 번역하였다.

'온 세상 곳곳에서, 어머니여 자녀들이,  
어려운일 가슴에 안고 먼 길 떠나 왔나이다.  
(후렴 : 굽어 보시어 위로와 사랑의 손 얹어 주사  
나를 위해 우리 주께 평화의 모후 빌으소서.)' M





## 성모님께서 주신 5가지 조약돌과 메시지

“기도는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다.”

메주고리에는 기도하고 거룩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기도의 학교"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기도, 기도, 기도하여라. 기도가 너희들이 매일 살아가는 양식이 되게 하여라. 기도는 강력한 무기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어두움의 세력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며, 가정과 교회와 각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분열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사탄의 유혹에 맞서 대적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는 무기로 5개의 조약돌을 주셨다.



### 기도

"너희의 무기인 묵주를 손에 들고 사탄을 물리쳐라!" -1985년 8월 8일-

묵주기도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전 생애를 묵상하는 관상기도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생애에 우리를 동반하게 해준다.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전 생애를 묵상할 수 있는 훌륭한 관상기도인 묵주기도는 하느님의 사랑과 뜻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있다. "끊임없는 기도 없이는 너희가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시는 은총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체험할 수 없단다." -1987년 2월 25일-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사랑, 신뢰, 포기(내어 맡김), 그리고 전심으로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 없이 우리는 하느님을 체험할 수 없다. 기도는 인간의 영혼을 치유하고 죄의 역사를 치유한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기도, 기도, 기도하여라. 기도가 너의 안에서 기쁨이 될 때까지 기도하여라. 나는 오늘도 너희를 기도하라고 부른다. 너희가 살아가면서 병들고 지쳐서 삶의 의욕을 잃어 버렸을 때 묵주를 들고 기도하여라." -2001년 4월 25일-

"사탄에게 너희가 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표시로 묵주가 항상 너희 손에 있게 하여라." -1989년 2월 25일-



### 성체성사

"거룩한 미사가 너희 삶이 되게 하라" -1988년 4월 25일-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발현과 미사가 같은 시간에 있을 때에는 미사에 참석하라고 하시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미사 중에 있는 성체성사임을 말씀하셨다. 거룩한 미사는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예수님 신비의 완전한 체험이다. 미사 중에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받아 모시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룩함으로 인도해줌을 굳게 믿으며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이 우리 삶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거룩한 미사를 너희 삶이 되게 하라고 너희를 부르고 싶다. 너희 가운데 미사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지만, 마지못해 미사에 오는 사람들도 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미사 때 너희에게 은총을 주신다. 그러므로 의식적으로 거룩한 미사에 온 마음으로 참례하여, 미사에 참례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라. 사랑으로 거룩한 미사에 참례하고, 그 미사가 바로 너희 자신의 미사가 되게 하여라.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 1986년 4월 3일 -



### 성경

"너희는 함께 가정기도를 하고 성서를 읽어야 한다." - 1985년 2월 14일 -

발현 목격증인들은 성모님께서 "너희들은 성경을 읽어



버렸구나."라고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전한다. 우리는 하느님께 기도를 하면서 많은 일에 도움을 청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그분의 응답은 듣지도 않고 계속 청하기만 하는 우리들에게 성모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은 매일 가정에서 성서를 읽으며, 너희가 성서를 읽고 기도하는데 용기를 얻기 위하여 항상 보이는 장소에 성서를 두라고 너희를 부른다." -1984년 10월 18일-. 라고 당부하신다. 성경은 나는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만나는 은총의 보고이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양식이 담겨 있는 곳이다.



### 단식

"마음을 다해 단식하고 기도하여라!"  
- 1984년 9월 20일 -

단식은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며 우리의 영혼이 육신의 조건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물질만능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며 하느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이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다. "단식과 기도로써 전쟁도 중단시킬 수 있고 자연 법칙도 변경시킬 수 있다." -1992년 4월 25일- 예수님께서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사탄은 기도와 단식말고는 쫓아낼 수 없다."고 하셨다. (마르 9, 29) 성모님께서는 단식을 사랑의 마음으로 하도록 당부하시며 단식을 위한 단식은 좋지 않다고 하셨다. 자신이 싫어하는 것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과 물질에 대한 애착을 끊는 일도 좋은 단식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가장 좋은 단식은 "빵과 물"의 단식이라고 말씀하시며 죄인들의 회개와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수요일과 금요일에 빵과 물만으로 단식하라."고 부탁하셨다. 그 외에도 (담배, 술, 골프, 낚시, 험담, 탐욕, 시기, 미움, 질투, 분노, 사치심, 악습, 상처) 등 일상생활 안에 있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실천하는 일들도 훌륭한 단식이라고 말씀 하셨다. 우리는 단식의 힘을 깨달아야만 한다. 단식은 하느님께 희생을 바침을 의미하며,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림을 의미한다. 우리는 특별한 지향과 우리 자신과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해 사랑으로 단식해야만 하며, 사탄에 대항하는 전투에서 우리 몸을 제공하는

군인이 되기를 원하여야 한다.

"가장 좋은 단식은 빵과 물로 하는 것이다. 단식과 기도를 통하여 전쟁도 멈추게 할 수 있고, 자연의 법칙을 바꿀 수도 있다. 자선의 행위들로(자선으로) 단식을 대신할 수 없다. 환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단식 해야만 한다."

-1982년 7월 21일-



### 고해성사

"오늘 나는 너희에게  
고해성사를 보도록 초대한다."  
- 1985년 3월 24일 -

고해성사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는 은총의 샘이다. 성모님이 발현하셨을 때 많은 이들이 성모님을 만져 보기를 원했다. 목격증인들을 통해 성모님의 허락을 받고 사람들이 성모님을 만지자 입과 계셨던 하얀 옷에 검은 손자국들이 여기저기 생겼다. 이에 놀란 목격증인들이 "성모님 왜 이렇게 됐나요?" 하고 묻자 성모님께서는 "그들이 고해성사를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즉시 많은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보기 위하여 성당으로 달려갔다. 그 후 이곳 메주고리에서는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수 많은 순례자들이 현존하시는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알게 모르게 묻혀 있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어 하느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며 고해성사를 보기 위하여 긴 줄을 서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끊이지 않는다. 메주고리에 서 고해성사를 주었던 한 사제는 "나는 지금껏 이렇게 아름다운 고해성사를 하는 이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곳은 진정 하느님과 사람들이 만나는 은총의 장소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나에게 주어진 사제직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다시 깨달았습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사제성소를 기뻐하며 감사드렸다. 발현 목격증인 비스카는 고해성사에 대한 성모님의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고해성사는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으로 인도합니다. 성모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를 죄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그 이후에도 같은 생활이 반복되는 것을 허락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고해성사는 변화에로의 부름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M

## "내가 이 본당을 선택했다"

묵주 기도 / 미사 / 성 시간 / 치유의 예절 / 십자가 경배



메주고리에 본당이 속한 지역은 해발 200미터에 위치한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으로 포도와 담배, 과일을 재배하기 이상적인 곳이다. 메주고리에 본당은 1897년에 본당으로 승격된 지 5년이 지난 뒤 순례자들의 수호 성인인 야고보 성인을 주보성인으로 성당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지반이 약한 땅 위에 세워져 건물의 균열이 생기자 허물어서 현재의 성전 왼쪽의 도로에 있는 공원에 보존되어 있다. 그 후 지금의 장소에 새 교회를 계획하여 1969년 1월 19일에 완공되고 축성 되었다. 그때 400여 가구 정도의 가난한 주민들이 사는 작은 마을에 2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성당을 세우는 것을 신자들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하느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었다. 그들은 몇 십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왜 그렇게 큰 교회가 필요했는지 알게 되었다. 1981년 6월 24일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후 메주고리에 본당은 전 세계의 수많은 순례자들이 자신들을 비우고 은총으로 채우기 위하여 찾아오는 곳이 되었다. 그곳에서는 세계의 평화와 구원을 위해 믿음과 기도, 회개와 단식에 대한 메시지가 순례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메주고리에의 평화를 체험하고 너그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가까이 계시는 하느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이웃에게 진리와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 돌아갔다.

메주고리에의 야고보 성당은 전 세계 가톨릭인들이 가장 가고 싶은 성모 발현성지가 되었다. 메주고리에 마을은 서부 헤르체고비나의 치트룩에 속한 여러 마을 중 하나이

다. 본당을 구성하는 다섯 개의 마을 (메주고리에, 비야코비치, 비오니카, 밀레티나, 수르만치) 중 가장 큰 마을이라 이름도 이 마을의 이름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성모님이 처음 발현한 언덕이 있는 마을 이름은 '비야코비치'이다. 비야코비치 마을은 메주고리에 본당에 속하는 5개 마을 중 하나이고 성모님께서 사람들을 성당으로 모여 기도하게 하셨기에 성당이름이 '메주고리에'로 전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메주고리에에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라는 나라의 남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주민들은 크로아티아인으로서, 이교도로 이 지역에 이주하였으며 천주교가 주민들에게 정착된지는 1300년 가량이 된다. 그 동안 수 많은 이민족들의 침략을 견뎌내었고, 특히 터키 식민지 시대와 공산치하에 있었을 때 마을 주민들과 프란치스코회의 성직자들은 극심한 박해속에서도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천주교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왔다. 발현 초기에 '성모님, 왜 메주고리에를 선택하셨나요?'라는 목격 증인의 물음에 '이곳은 신앙이 살아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신 성모님 말씀을 통해서도 이들이 지켜온 굳건한 신앙을 확인할 수 있다. 슬라브어에 기원을 둔 메주고리에라는 말은 "산과 산 사이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 미사

메주고리에에서의 저녁미



사는 그날의 가장 중요한 일정이다. 어느 날, 요조 신부와 마을 신자들은 야콥이 전하는 "성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고 하시는 성모님의 메시지에 따라 함께 모여서 묵주기도를 드리던 중에 성모님께서 요조 신부에게 발현하시어 말씀하셨다. "저녁미사는 영구히 지속되어야만 한다." -1981년 10월 6일-. 성모님께서서는 또한 미사 전에 항상 성령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다.

성모님께서는 '미사와 함께하는 이 저녁 예절을 세상 끝 날까지 계속하여라. 나는 이 본당을 이 세상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본당이 되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 하셨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메주고리에 본당은 일 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3시간씩 묵주기도, 미사, 성시간을 하는 저녁 미사를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25년 가까이 본당의 신자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순례자들과 함께 메주고리에의 성 야고보 성당에서 함께 묵주의 기도를 드리며 거룩한 미사와 함께 성체현시의 성시간을 통하여 기도와 회개의 시간을 갖고 있다. 이 저녁 예절에서 많은 순례자들이 성모님의 겸손하심과 단순하고도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은총을 받는다. 이와 같은 은총은 각자의 마음을 회개의 길로 이끌며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끌어 준다.

다른 문화와 언어권에서 모인 순례자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드리는 기도이지만 모두 한 마음으로 한분이신 하느님을 찬미하여 그분의 현존하심을 체험한다. 메주고리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은 마치 성모님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사방으로 흩어져있던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셨던 오순절 때를 연상하게 해준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하여라. 성령의 은사를 구하도록 하여라. 그러면 지혜와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 성령의 배필이신(마태 1, 8) 성모님은 예

수님께 가는 가장 쉽고 안전하며 완전한 길이시기에 지금도 우리들을 돌보시며 예수님께로 향한 기도와 회개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

## 성 시간



특히 일주일에 네 번 있는 (수, 목, 금, 토) 메주고리예의 성시간 음악은 멜린다와 롤랜드가 성모님께 드리는 치유의 음악으로 유명하다. 멜린다는 유럽의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였으며, 롤랜드는 이탈리아의 음악가로 마약중독자였었다. 이들은 메주고리에 순례에서 슬라브코 신부님의 영적지도를 받으며 자신들을 성모님께 봉헌했다. 그 후 세속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하느님 사랑의 자녀회'에 입회한 후 수도자로 살아가면서 메주고리에 본당의 전례 음악을 연주하며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순례자들은 이들의 음악을 통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안다면 너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모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회개하며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뜨거운 눈물 속에서 영육간의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는 큰 은총을 받는다. M



발현초기 첫 발현 장소에 한국의 남북 통일을 기원하며 봉헌된 성모님 상.

## 평화, 평화, 평화, 오직 평화를!

### 발현 산 / 십자가 산 / 청 십자가

크르니카의 언덕 위에 성모님께서 첫 번째로 발현하셨던 곳을 발현 산(팻브르도) 이라고 부른다. 성모님께서 처음 발현하셨던 이곳은 도시의 문화와 편안함에 젖어 살던 순례자들이 날카로운 돌산을 맨발로 오르며 기도하

는 곳이다. 이산에는 이태리 조각가인 까펠로스 뿌졸로가 자신의 불치병을 치유 받은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제작한 '환희, 빛, 고통, 영광의 신비가 새겨진 묵주기도 묵상처가 청동으로 봉헌되어 있다. 발현산 언덕 초입의 왼쪽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가 있는데 1981년 6월 26일에 성모님께서 마리아 파블로비치에게 발현하신 곳이다. 성모님의 발현을 보고 언덕을 뛰어 내려가던 마리아는 바로 이곳에서 다시 한 번 성모님의 발현을 보았다. 성모님께서 슬픈 얼굴로 "평화, 평화, 평화 오직 평화를! 평화가 하느님





성모님이 두번 째 발현하셨던 장소의 십자가

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며 그 뒤에는 큰 십자가가 있었다고 한다. 순례자들은 이곳에서 그 어느 때 보다 사람들과 세계를 위하여 성모님이 말씀하신 평화의 메시지를 묵상하며 기도 중이며, 성모님께서 발현하셨던 장소는 바위로 된 울퉁불퉁한 커다란 공터였지만 그 주변이 수백만의 순례자들의 발길로 풀 한 포기 자라지 않는다. 성모님께서 처음 발현하셨던 곳에는 수북이 쌓인 돌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으나 지금은 한국의 통일을 위하여 부산에 사는 한국인 순례자가 아들의 치유에 대한 감사로 봉헌한 성모님상이 모셔져 있다. 이곳에 성모님 상을 모시기로 한 계획이 알려지자 세계 각국에서 신청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메주고리에 본당의 신부님들은 한국의 통일을 기원하면서 한국을 택했다고 한다. 지금 이곳은 일 년 내내 어느 때나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을 찾아 성모님을 통해 주시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침묵하며 기도하고 있다.

**성모님께서서는 이 십자가 산에서 새벽동이  
틀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주십니다.  
- 목격증인 비스카 -**

야고보 본당과 약 1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마을 주민들이 크라자밧이라고 부르는 십자가 산이 있다. 이 산은 1934년까지는 싯포밧츠 (Sipovac) 라고 불렸으나 베르자 디네스 몰리안 사제에 의하여 크라자밧(십자가산)으로 이름

지어졌다. 1934년 3월 15일, 인류의 구세주 예수그리스도께 믿음과 사랑과 희망의 상징으로 메주고리에 본당의 신자들이 예수님의 수난 1900년을 기념하기 위해 8.56미터 높이의 콘크리트 십자가를 해발 448 미터 정상에 세웠다. 메주고리에 본당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에는 당시의 본당 사제였던 스몰리안 신부의 증언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 무거운 자재들을 엄청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옮겨야 했다. 메주고리에 본당 신자들의 고된 노동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노인들과 어린 소년 소녀와 모든 마을 사람들은 이 성스러운 십자가를 세우기 위하여 한 달반 동안 모든 힘과 노력을 다했다. 그들은 석회, 물, 시멘트, 철근, 모래, 골조 나무기둥과 모든 자재들을 어깨에 메고 길도 없는 험한 바위산을 기도하면서 올랐다."

이 십자가 산의 십자가에는 4세기경 헬레나 성녀에 의해 발견된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거룩한 십자가 나무의 한 부분인 십자가 조각의 유물이 모셔져 있다. 이 십자가에는 "예수님 모든 악에서 저희를 구하소서."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발현 목격증인들은 성모님께서 이 십자가 산에서 새벽 동이 틀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주신다고 전하고 있다. 성모님의 탄생기념일 후 돌아오는 첫째 주일 즉, 십자가 현양 축일에 예수님의 십자가 수난을 기념하여 산 위의 십자가 밑에서 미사를 드린다. 그 산을 오르는 길에는 이태리의 유명한 조각가인 까르멜로 뿌쭌로가 이곳에 왔다가 큰 체험을 하고 보속의 의미로 직접 제작한 예수님의 수난을 조각한 청동으로 된 14치의 십자가 길이 봉헌되어 있다. 이 십자가의 길에는 각처마다 성모님의 모습이 함께 새겨져있고, 이것은 또 하나의 십자가의 길인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순례자들은 산을 오를 때 이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자신들의 삶 안에 있는 고통들이 하느님께 향하는 길에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해왔음을 알게 된다.



십자가 산 (크라자밧)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였던 자신들의 고통이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믿고 맡겨주시는 축복이었음을 체험한 순례자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삶속에 있는 십자가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인다. 그들은 또한, 고통을 통해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에 감사드리며 뜨거운 눈물을 흘린다.



청십자가 -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곳

발현 초기 어느 날 6명의 아이들은 그날도 성모님의 부르심을 받고 발현산을 향해 올라갔다. 그러나 본당 신부님조차도 성모님의 발현을 믿어 주지 않았던 그 때에 공산당 경찰들은 가톨릭 프란치스코회 사제들과 6명의 아이들이

공산체제를 무너뜨리고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어느 날 경찰들은 아이들이 발현산 쪽으로 가는 것을 알고 그들을 잡아가려고 몰래 발현산으로 왔다. 그러나 성모님께서 이것을 미리 아시고 그날은 발현 산으로 올라가는 아이들에게 위험하니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하시며 지금의 청 십자가가 있는 장소로 아이들을 피신시키셨다. 그곳에서 가시나무 숲에 숨도록 이끄신 후 아이들에게 발현하셨다. 경찰들은 아이들이 산에서도 보이지 않자 그들을 찾아 이곳까지 왔지만 아이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아이들은 후에 증언하기를 그때 이곳에서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큰소리로 노래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공산경찰들은 아이들을 찾고자 혈안이 되어 산 전체를 뒤지며 헤메었으나 그들을 찾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아이들을 위험에서 보호해 주신 이곳에 성모님께서 지금도 계속 발현 하신다. 사람들은 아이들을 위험에서 지켜주신 이곳을 기념하기 위하여 청 십자가를 세웠다. 지금도 이곳에서는 목격증인 이반의 기도회가 열리고 있으며 성모님께서 그 기도회를 직접 주관하여 주신다고 한다. 성모님께서 특별히 이곳에서 자녀들을 위해 드리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마치 갈릴래아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와 같이 당신 아들 예수님께 우리들의 기도를 청해주신다고 한다. **M**

## 간절한 기도 지향을 성모님께 전해 드립니다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를 선교회로 보내주시면  
중재 기도의 사명을 받은 발현 목격자 비스카에게  
전달하여 성모님의 발현때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기도지향**을 위하여  
선교회의 지도신부님께서 미사를 봉헌해드립니다.

보내 실곳 :

**Queen of Peace Missionary (미국)**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610-366-9612 Fax 610-366-9614

e-mail: qpmm.org@gmail.com / 홈페이지 www.qpmm.org



# 발현 목격증인들에 대한 과학적 조사 보고서

-마이클 W.페트라이드 -

6명의 발현 목격증인들을 조사한 마이클 W.페트라이드(Michael W. Petride)는 Living연구소에서 뇌편 축성과 시각지각 분야에서 광범위한 공부를 했고 세인트루이스 대학의 임상심리학분야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다. 그리고 지금은 커네티컷(Connecticut)의 노르위치(Norwich)교구에 있는 가톨릭 자애병원의 외래 환자 정신건강 치료 업무를 지도하고 있다. 다음은 1993년 9월 10일자로 작성한 가톨릭 문헌에 실린 메주 고리예에 대한 그의 논평이다.

## 여러 압력에 대한 각막의 민감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다.

메주고리예의 발현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발현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프랑스의 Montpellier대학의 Henri Joyeaux교수가 조사 팀을 지휘했고 이탈리아의 Frig erio박사와 그의 동료들이 함께 조사를 진행했다. 발현의 규칙성은 일관성이 있었



고 매우 신뢰할만한 현상들을 보여주었다. 성모님이 발현하였다고 추정되어질 때 0.2초 이내에 6명의 목격증인들은 동시에 동일 장소(비록 참고할 만한 지점이 보이지는 않았지만)를 응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동시성은 외부 물체가 그들의 시선을 붙든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수 없었다. 단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이를 전혀 볼 수 없었다. 그리고 같은 0.2초 이내에 동시에 무릎을 꿇고 눈의 움직임이 중단되었다. 전체 발현 시간 동안 (3분에서 45분) 눈의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 발현이 끝나갈 때는 위쪽으로 움직이는 응시지점을 따라 동시에 머리와 응시하는 곳이 위로 움직였다. 발현이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은 눈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눈동자는 1분에 15-20회 정도 눈을 깜박거리어서 각막을 적셔주지 않



성모님의 발현때 시각과 뇌파검사를 받고 있는 증인들

면 보통은 말라버리지만 발현 동안에 그들에게는 눈물 분비가 필요 없는 것으로 보였다. 나머지 다른 목격증인들은 정상 속도의 반 정도로만 눈을 깜박거렸다. 평소 때는 정상적으로 눈을 깜박거렸지만 성모님의 발현을 볼때는 눈을 만져도 깜박거리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여러 압력에 대한 각막의 민감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다.)



발현 동안에는 통증에 대

한 반응도 없었다. 피부에 외상을 주거나 피부가 화상을 입을 정도로 압통계를 사용하여 자극을 주어도 자극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었다. 평소 때는 발현 목격증인 모두가 통증에 정상적으로 반응했다. 청각 시험의 흥미있는 결과로써 발현 전엔 정상적인 청각 기능을 보여 주었으나 발현 중엔 90데시벨(큰 폭발음에 해당)에도 반응이 없었다. 청각 기관의 전위측정(귀의 전기적 활동)역시 정상적인 귀의 활동을 보여 주었으나 발현 기간 동안에는 내이(속 귀)로는 전달이 되지 않았다. 청각의 뚜렷한 정지는 생리학적으로는 설명이 안되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다. 뇌전도 검사 (EEG)는 목격증인들의 뇌기능이 정상이고 건강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또 이들이 간질 증세나 정신 병적인 환각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수면 상태나 꿈을 꾸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 히스테리적인 신경반응이나 병적인 무아경도 아니라는 것을 이 검사는 확인해 주었다. 발현전의 뇌전도 검사는 주로 베타 리듬을 보여 주었고 알파 리듬이 사이사이에 산재되어 있음을 보여 주었다. (정상 의식 상태) 발현이 시작되면 베타 리듬은 곧 거의 방해받지 않는 알파 리듬으로 대체되었다. 알파리듬은 휴식이나 명상 중에 거의 대부분 관찰되는 리듬이다. 이런 혼란스런 반응을 얻기 위해선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발현 목격증인들이 전 발현 과정을 통해 눈을 뜬 채 있었으므로 뇌가 전적으로 물체를 보는데 매달렸지만 대부분의 뇌파가 알파 리듬이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사물을 보는 시각 자극은 보통 알파 리듬을 방해하므로 눈을 감게 되면 알파 리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시각 감각을 더 시험하기 위해 발현 동안에 목격증인들의 눈앞에 1000와트의 전구 등을 놓아 보았다. 1000와트의 전구 등은 눈에 고통을 줄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는 눈이

자주 깜박거리고 알파 리듬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1000와트의 자극에도 눈의 깜박거림이 전혀 없었다. 동공의 반응도 흥미로웠다. 밝은 빛에서는 그렇듯이 동공은 수축했지만 1000와트의 조명에서도 알파 리듬은 변화가 없었다. 이런 현상은 지금까지 본적이 없었으며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었다. 동공의 반응에 대해 뇌는 빛을 감지해야 되지만 뇌파의 변화가 전혀 없었다. 덧붙이자면 이러한 강한 자극은 상당한 피부 외피의 반응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발현 중엔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았다. 발현 동안에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사건이 생겼다. 그들이 발현을 목격하는 동안에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말을 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근육이(턱, 입, 목구멍의 근육) 작용했지만 후두는 달혀 있었다. 이는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후두부의 기능은 말하는데 사용되는 다른 근육과 신체적으로 분리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발현 동안엔 후두의 소리를 내는 기능이 멈추어버린 것이다.

한 가지 예외가 있었다. 목격증인들이 동시에 입을 모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린 것이다. 이를 나중에 물어 보았을 때 성모님께서 목격 증인들에게 함께 주님의 기도를 바치게 할 때라고 했다. 요약하면, 과학적인 조사의 결과에 따른 특이한 현상은 신체 어느 부분도 발현 경험을 방해하지 않았다. 과학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열심히, 집중력 있게 하는 기도, 부분적으로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들만이 듣고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위치의 사람과 묵상 중에 있는 상태"라고 정의했다. 현재 교회의 입장은 일종의 잠정적인 승인이다. 교황과 전 교구 주교는 메주고리예를 합법적인 순례지로 인정하여 순례를 허락하고 사제가 동반하는 것을 허락했다. **M**



1000와트의 조명에서도 알파 리듬은 변화가 없었다.

# "나는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너희들을 선택했다!"

—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발현 목격 증인들 —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비스카 (Vicka Ivankovic)



비스카가 처음에 성모님의 발현을 보았을 때는 17살이었다. 그녀는 1964년 9월 3일 비야코비치에서 태어났다. 성모님께서 그녀에게 처음 발현하신 것은 1981년 6월 24일 이었다. 그녀는 성모님이 주시는 10가지의 비밀 중에 현재 9개의 비밀을 받았다. 성모님께

서는 비스카와 야콥에게 천국과 연옥, 지옥을 직접 보여 주셨으며, 비스카에게 죄인들의 회개와 병자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주셨다. 지금도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고 있는 비스카는 특별히 순례자들과 전 세계의 모든 이들이 성모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지향들을 위해 중재기도의 사명을 받았다. 성모님께서 비스카에게 매일 발현하실 때 봉헌된 모든 기도 지향들을 축복해주시고 그 기도의 지향들을 가지고 가신다고 한다. 성모님께서 비스카에게 당신의 생애를 보여 주시며 기록하게 하셨는데 성모님께서 허락하실 때 세상에 공개하게 된다고 한다. 비스카는 평화가 가득한 미소를 띠며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순례자들에게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해주며 이렇게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성모님께서 10개의 비밀이 실현되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오랫동안 메주고리에 오시는 것은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

기 위해서입니다. 성모님께서 당신이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이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때문에 매우 슬퍼하고 계십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를 믿고 회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신앙인의 삶을 버리고 지옥을 향해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믿는 가족들이 바치는 기도와 단식은 성모님의 망토가 되어 믿지 않는 그들을 보호해줄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매일 물을 주지 않는다면 결국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들은 매일 매일 조금씩이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와 단식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미리야나(Mirjana Dragicevic-Soldo)



1965년 3월 18일에 사라예보에서 태어난 미리야나는 슬라브코 바르바리치 신부의 조카이기도 하다. 그녀는 메주고리에서 6월 24일 복되신 성모님을 두 번째로 본 사람이다. 가족과 함께 사라예보에 살고 있었던 그녀

는 비야코비치에 있는 할머니 집에서 여름방학을 보내고자 메주고리에 왔을 때 성모님의 발현을 보았다. 미리야나는 6명의 목격증인 가운데 10가지의 비밀을 받은 첫 번



2011년 7월 2일 성모님 발현장소

째 사람이다. 그녀는 1981년 6월 24일부터 1982년 12월 25일까지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았는데 마지막 날 미리야나는 성모님으로부터 10번째 비밀을 받았다. 성모님께서 "미리야나야, 나는 너를 선택하였다. 나는 정화의 시기가 올 때 이 세상에 닥칠 무서운 일들을 너에게 알려 주었다. 내가 미래에 닥쳐올 이 무서운 일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생각해 보아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더 이상 매일 너에게 발현하지 않더라도 너는 그것을 이해하고 용기를 가져야 한다." (1982. 12.25일) 성모님은 정화의 시기에 세상의 죄악 때문에 내려질 징벌과 시기에 대한 10가지의 비밀들이 적혀 있는 양피지를 주셨다. 이 비밀을 발표할 시기를 성모님께서 미리야나에게 알려주시면 페타르 류브치치 신부를 통하여 세상에 공표하게 된다. 성모님께서 마지막 발현때 미리야나의 생일인 3월 18일에만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으나 이 세상이 정화의 시기에 일어날 어려움에 대한 계시와 예언을 알고 몹시 괴로와하는 그녀를 위로하시고자 1987년 8월 2일부터 매일 2일 발현하시면서 성모님께서 그 시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를 주신다. 이 발현은 개인적인 것이었으나 1997년 2월 2일 부터 체나콜로 공동체와 청십자가등의 장소에서 순례자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그녀는 어릴 적 친구였던 Marko Soldo와 결혼하여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메주고리에 살고 있다. 미리야나는 10가지의 비밀이 무엇인지 묻는 순례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날이 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 바치는 묵주 기도와 미사, 영성체는 우리를 보호하여 줄 것입니다. 하느님은 미래의 시간에도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 모든 축복은 하느님께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리아 (Marija Pavlovic-Lunetti)



- 마리아는 1965년 4월 1일에 비야코 비치에서 태어났다. 그녀에게는 3형제와 2자매가 있다. 발현이 처음 시작 되었을 때 성모님의 발현을 처음으로 본 사람은 그녀의 동생 밀카였다. 그 다음날 동생 대신 마리아가 그 장소에 가면서 목격증인의 삶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성모님께서서는 메주고리에를 찾아 오는 사람들은 대단히 큰 축복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축복은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 말고는 그 어느 것에도 만족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성모님께서로부터 9가지의 비밀을 받았으며 아직도 매일 발현을 보고 있다.

마리아는 매일 25일에 온 세상에 주시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마리아가 즐겨하는 기도는 '마니피캣'인데 그녀는 그 기도문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성모님의 마음이 듬뿍 담겨 있는 아름다운 기도라고 말한다. 그녀는 결혼하여 이탈리아에서 살고 있으며 자주 메주고리에에 머물고 있다. 마리아는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성모님께서서는당신을 평화의 모후라고 하시고 자신들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단식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징표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능력있는 사람들보다 당신의 메시지에 겸손한 마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매사에 자신을 낮추고 성모님의 메시지를 자신들의 삶안에서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축복은 하느님께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십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의 회개와 변화된 삶을 기뻐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크고 작은 일에서 늘 성모님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은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늘 많은 은총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예수님은 하느님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 이반카 (Ivanka Ivankovic-Elez)



이반카는 성모님의 발현을 본 4 명의 소녀중 가장 나이가 어리며 1966년 7월 21일 비야코비치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어머니인 Jagoda는 1981년 5월에 세상을 떠났다. 성모님의 발현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이반카는 며칠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해 물어 보았다. 성모님께서서는 이반카의 어머니는 예수님과 함께 잘 지내고 있다고 하셨다. 어느 날 그녀의 어머니를 데리고 오시어 이반카와 대화를 나누게 하셨는데, 그녀의 어머니는 "할머니를 잘 모시도록" 당부했다고 한다. 이반카는 1981년 6월 24일부터 1985년 5월 7일까지 성모님의 발현을 보았다. 그날 성모님께서서는 이반카에게 마지막 10번째의 비밀을 주셨으며, 그 후로는 매년 발현 기념일인 6월 25일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반카는 결혼하여 메주고리에 살고 있다. 이반카는 성모님의 메시지에 대하여 이렇게 전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드릴 때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한 가족으로 일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미사 때에 성체를 통해 우리에게 완전히 당신을 내어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도 미사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옥은 정말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영혼을 멸망시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수호천사의 도움을 청하세요. 수호천사는 모든 위험에서 우리들을 보호해주며 천국의 길로 인도해줍니다. 현대인들은 메주고리에서 주시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더 많이 기도하고 회심하고 하느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 우리가 약해지면

###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 이반 (Ivan Dragicevic)

이반은 1965년 5월 25일에 비야코비치에서 태어났다. 목격증인 가운데 가장 키가 크고 내성적이며 늘 말이 없고 조용한 편이지만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강한 어조와 확신으로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반은 한때



사제가 되고자 했으나 그것이 자신의 가야할 길이 아님을 깨닫고 다시 메주고리예로 돌아갔다. 현재 9가지의 비밀을 받았으며, 지금도 매일 성모님의 발현을 보고 있다. 현재 결혼하여 미국 보스톤과 메주고리예를 오가며 살고 있다. 이반은 성모님의

메시지와 자신의 체험을 이렇게 전한다. "메주고리예는 영적인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는 수 많은 사람들을 은총으로 살려내는 곳입니다. 현 시대의 가정은 물질만능주의에 젖어서 마치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같습니다. 특별히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죄에 빠지기는 쉽지만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은 굳은 결심과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가족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사탄은 너무나 강하니 당신께 모든 것을 의탁하라고 하십니다. 사탄은 잠을 자지 않고 갖은 방법으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더 많이 기도하고 단식해야 합니다. 목주를 손에서 놓지 마십시오! 목주 기도는 사탄의 유혹을 막아주는 보호의 벽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큰 유혹과 고통이 있을 뿐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참된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며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줍니다. 저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믿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그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 야콥 (Jakov Colo)

야콥은 목격증인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리며 1971년 3월 6일에 비야코비치에서 태어났다. 야콥이 성모님의 발현을 보았을 때 나이는 10살이었다. 야콥의 나이 여덟살 때 아버지는 가족을 버리고 떠났다. 그때부터 야콥의 어머니인 Jaca는 알콜 중독자가 되었으며 4년 후인 1983년 9월 23 일에 세상을 떠났다.



## 사람들은 자신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고 단식해야 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죽음은 매우 깊은 영향을 주었다. 성모님께서서는 야콥에게 "어머니는 나와 함께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라고 가르쳐 주셨다. 야콥은 결혼하여 메주고리에 살고 있다. 1998년 9월 12일 그날은 성모님께서 야콥에게 발현하신 마지막 날이었다. 성모님께서서는 오전 11시 15분 조금은 슬픈 얼굴로 야콥에게 30분 동안 발현하시어 10번째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오늘이 내가 너에게 오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이 후로는 매년 크리스마스 때에 너를 찾아오겠다. 너는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길을 가거라. 그리고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 가거라."하고 말씀하셨다. 성모님 발현 당시 가장 어렸던 목격증인 야콥은 물질주의만능주의에 젖어 병들어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한다. "사랑과 용서와 평화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표시

입니다. 당신의 가정이 다른 이들보다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다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지 말고 다른 이들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기도하고 단식하고 용서하십시오. 물질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감사드리며 그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며 살아 가십시오. 메주고리에 영구한 표징이 내려지면 온 세상 곳곳에서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적인 치유가 많이 일어 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사람들은 자신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고 단식해야 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는 단식은 성모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전쟁은 나라와 나라끼리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위를 돌아 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안에, 가정안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진실로 성모님의 메시지를 믿는다면 회개하고 변화될 것입니다." **M**

###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2001년 1월에 창간호를 발행하여 지난 11년 동안 격월로 발행되어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해오던 '평화의 모후' 소식지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발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11년 2월과 6월에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평화의 모후' 소식지 발행이 중단되었었으며 2011년 6월호인 소식지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 30주년기념 특집' 제 61호 소식지도 선교회의 재정적 어려움을 돕기위한 후원 모금에 동참해주신 형제 자매님들의 십시일반 도움으로 8월에 발행 되었습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이세상에 알리고자 왔다." 라고 말씀하신 성모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설립된 선교회가 '평화의 모후' 소식지를 계속 발행할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와 지속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십시일반 후원회원들께는....

1. 격월로 발행되는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를 보내드립니다.
2. 메주고리에 순례 미사에 매월 첫토요일에 회원들과 가정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합니다.
3. 선교회로 보내주시는 모든 기도 지향들을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는 목격증인들에게 전달하여 성모님께 봉헌하고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4. 평화의 모후 기도회에서 지속적인 기도를 봉헌해드립니다.
5.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비영리단체로서 모든 후원금은 IRS의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 안내

보낼곳 : Queen of Peace Missionary (평화의 모후 선교회)

주 소 :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

Tel : 610-366-9612 FAX : 160-366-9614

E-mail: qpmm.org@gmail.com / 홈페이지: www. qpmm.org

송금 은행 : Wells Fargo Bank / 송금 번호 : ABA# (031201467) / Acct.# (2000012394184)

은행주소 : 301 East Main Street, Macungie, PA 18062



##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시간들은 대단히 큰 책임이 따르는 시간입니다.

- 목격증인 이반 -

남 그레고리오

###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초대

언제부터인가 나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삶과 발자취가 있는 그곳에 가서 늦동이 막내 아들을 치유시켜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순례를 위한 지향으로 시작한 9일기도가 끝나던 날, 우연히 평화신문에서 메주고리에 순례 안내를 보는 순간, 기도 지향과는 달리 메주고리에 가고 싶었다. 나는 그 날부터 '메주고리에' 순례를 지향하며 9일 기도를 시작하였다. 1998년, 동북부 성령대회에 참석하고 있을 때, 한 자매님이 '메주고리에 메시지'라는 책 한권을 주었는데 루터교 신자이면서 언론인이고 작가인 웨인 와이블이 쓴 책이었다. 나는 그 책의 내용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으며 밤을 새워서 읽게 되었고 나도 모르게 메주고리에 성모님께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 그것은 나를 부르시는 성모님의 초대이었던 것이다!

메주고리에! 성모님께서 현존해 계시는 그곳은 결코 그저 한번 다녀 오는 곳이 아니었다. 1999년, 메주고리에 순례는 나와 가족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마을은 어머니의 포근한 품속이었으며 마치 천국이 이 세상에서 미리 살아가는 것처럼 평화롭고 행복했다. 그곳은 성모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학교이고 하느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피정의 마을이었다. 1년 365일 매일 3시간씩하는 저녁 예절은 하루 일과중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으며 거룩한 미사와 성시간은 가톨릭 신앙의 아름다움과 자부심을 깨우쳐 주었다. 눈으로 볼 것은 하나도 없는 척박한 시골 마을에서 나는 온 세상의 성지를 다녀 온 듯이 신앙의 신비를 보고 배웠다. 집으로 돌아 온 후, 당연히 아내 미카엘라도 메주고리에 순례를 가게 되었고 미카엘라는 그곳에서 성모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화속에서 내적 치유를 받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울보가 되어 돌아왔다. 우리는





우리 둘은 비로서 한국어 소식지의 발간이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것을 느끼게 되었다.

2000년 여름, 본당의 전례부를 맡고 있던 나는 그날도 평일 미사 준비를 위하여 미카엘라와 함께 차를 타고 성당으로 가는 중이었다. 앞으로 어떻게 성모님의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을 때 미카엘라는 "평화의 모후 센타 USA" 라고

늘 가고 싶은 고향이 되어 버린 메주고리예를 잊지 못하여 그후 다시 메주고리예로의 순례길을 떠났다.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하며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시고 하느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완벽하게 실천하시는 분이시다. 성모님께서는 물질만능주의에 젖어 하느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들을 구원하고자 기도로 초대하시며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결실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찬미하여라." (1985년 10월 3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 너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성모님의 메시지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긴 세월 동안 들어왔던 교회의 가르침이었고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것이었다. 문제는 변화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결심이 필요 할 뿐이다.

### 평화의 모후 센타 USA

미카엘라와 나는 메주고리예 순례를 다녀 온 후,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어느 날, 미카엘라가 메주고리예 야고보 본당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를 우연히 내게 보여 주게 되었고 각 나라마다 자기네 언어로 된 메주고리예 소식지가 있는데 우리 한국어권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로 이야기하게 되었고 "평화의 모후 센타 USA" 라는 이름이 성모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성모님께서 이름까지 주시며 인도해주시니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우리는 즉시 '평화의 모후센타 U.S.A'를 설립하여 성모님의 소식지 발행 준비를 하기 시작하였다.

롱아일랜드의 그레이트 벡 성당에 다니던 나는 전례부장직을 사임하기 위하여 김한기 시몬신부님을 찾아갔다. 그리고 '메주고리예' 소식지 초본을 보여 드리고 본당의 사목위원으로서 교회 인준을 받지 않은 일을 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렸다. 그런데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김한기 신부님께서 누군가 꼭 해야 할 일을 본당 신자가 한다니 기쁘다고 하시며 오히려 격려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김한기신부님께서는 "나는 메주고리예 성모님 발현과 메시지를 믿습니다. 평신도로서 인준되지 않은 곳의 메시지를 전하는 소식지를 지속적으로 발행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방패가 되어 드리지요. 그래도 현직 사제가 발행인을 하면 도움이 되겠지요." 하시며 소식지 발행인을 자청해주셨다. 사목위원직을 사임하려고 만난 신부님께서 든든한 협조자가 되어 주시니 성모님께서 직접 관여하시고 도와주시는 일임이 분명했다.

우리는 책을 발행해 본 경험은 없었지만 시작과 마무리



를 성모님께서 주관하실 것을 믿고 2001년 1월에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 제 1호인 창간호를 발행하게 되었다. 소식지를 기다리는 곳도 없고, 알려진 곳도 없었지만 창간호 만부를 인쇄하여 차에 싣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소식지를 전해주고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보내었다. 소식지 편집을 맡은 미카엘라는 컴퓨터에 아직 익숙하지가 않았던 때이라 소식지의 기사들을 모두 손으로 쓰면서 일할 때였다. 하루는 아침 미사를 드리고 돌아온 미카엘라가 갑자기 컴퓨터를 배우겠다고 했다. 소식지 기사를 일일이 손으로 쓰자니 너무 힘들어서 성체를 모신 후, 예수님께 말씀 드렸다고 한다. "예수님, 저 컴퓨터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손가락이 너무나 아파요..." 그 때 예수님의 말씀이 강한 느낌으로 전해 오기를 "내가 할 수 있다고 해도 너는 나의 말을 믿지 않으니 내가 도와 줄 수가 없구나..."라는 미카엘라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나는 내심 마음이 아팠다. 성모님이 주신 사명이지만 경험도 없는 소식지 편집을 3년 동안 손으로 써왔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뒤에서 말없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 미카엘라가 너무나 고마웠다.

초창기 어려움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초기에 소식지를 만들 때는 광신자, 무모한 일을 한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다.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료로 보급되는 소식지 인쇄와 발송 비용이었다. 당시의 미국은 한국과는 다르게 우체국에서는 개인이 부치는 소포물의 갯수가 제한되어 있었다. 우체국 책임자는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주면 책임추궁을 받게 된다고 하면서 소식지를 발송할 때마다 얼굴에 싫은 내색을 하며 차갑게 대했다. 그러나 다른곳에

소식지 발송을 위탁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우리는 동네 주변 우체국을 돌아다니며 가끔씩 우체국 직원들에게 뇌물 성격을 띤 과일과 선물을 하면서 눈치껏 발송해야 했다. 그러던 중에 뉴욕 맨하탄 중심부에서 9. 11 테러가 발생하자 소포는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일일이 발송자의 주소를 확인하는 까다로운 절차때문에 소식지의 발송은 더욱 힘들었다.

나는 메주고리에에서 목격증인 미리아나의 집에서 열흘간 머물렀던 적이 있었다 어느날 목격증인 미리아나의 개인 발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목격증인 미리아나와 함께 성모님이 발현하시는 현장에서 나는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다. "성모님, 저희가 얼마나 부족한지는 당신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성모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어머니께 맡깁니다." 잠시 후 성모님의 발현이 끝난 후 목격 증인 미리아나가 나에게 말했다. "한국 사람들을 메주고리에 성모님께 인도하는 안내를 해보세요." 나는 주저 없이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미카엘라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소식지를 만드는 것도 벽찬 일인데 순례 안내까지... 아직도 어린 네 아이들을 생각하면 당연한 망서림이었다. 성모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분명히 많은 책임이 따르고 있었다. 둘 중의 하나를 선택 해야 하는 갈등 속에서 성체 신심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다. 어떤 신부님의 강론을 통해 성모님께서 주신 기도 응답은 간단했다." 신앙인들은 먼저 일상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은 그 회사의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주인 모르게 다른 일은 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둘 중의 하나는 그 사람의 필요에 의한 형식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있는 곳이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그것은 많은 변화를 뜻하는 것이었기에 나는 미카엘라의 결정을 기다렸다. '메주고리에' 창간호를 들고 데레사 자매님과 면담을 하고 온 미카엘라가 말했다. "성모님께서 우리가 필요하신가요." 신시내티에서 돌아 오자 또 다른 기도 응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레고리오 형제님, 우리 성당에서 메주고리에 순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안내를 맡아 주시겠어요?"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사명과 소식지 전파

창간호 소식지를 받은 회원들이 보내오는 격려 편지와 자원봉사자들이 많아졌다. 봉사자들은 성모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메시지 전파에 헌신하며 많은 형제자매들을 교회의 성사와 말씀, 기도생활로 인도하였다. 가정이 깨질 위기에 있던 부부가 성모님 메시지를 읽고 화해하고 새로운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도 있었다. 또한 소식지는 지속적인 신앙생활이 어려운 공소와 냉담교우들의 회심지와 레지오 단원들의 선교지로 활용되고, 특히 양로원에서 외롭게 지내는 어른들이 메주고리에 소식지를 통하여 성모님의 사랑과 위로를 체험하신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은 잊혀지게 되고 오히려 기쁨 안에서 용기가 솟아올랐다. 선교회가 3천 5백곳의 가정과 108곳의 공동체 및 공소에 11년 동안 소식지를 무료 배부 할 수 있었던 것은 선교회를 사랑해주시는 성직자들, 수도자들, 그리고 후원 회원들과 봉사자들이 물심양면으로 함께 동참하여 주신 결실이다. 선교회의 주인이신 성모님께서도 소식지 보급에 참여 하여주시는 모든 분들의 희생과 사랑에 큰 축복으로 채워 주실 것을 믿고 감사 드린다. 현재 소식지는 '평화의 모후'라는 제호로 괄과 사이판을 포함한 미주 전 지역과 캐나다, 한국, 중국, 러시아, 터키, 영국, 브라질, 독일, 영국, 뉴질랜드, 호주, 이태리, 페루, 프랑스, 멕시코, 남아프리카와 메주고리에에서 성모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 전문가 봉사자들은 지역을 초월한 선교사명의 일환으로 홈페이지 [www.qpmm.org](http://www.qpmm.org)를 통하여 성모님의 메시지와 '평화의 모후' 소식지를 전하고 있다.

'평화의 모후 센타 USA'를 모태로 출범한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간 지도신부로 계셨던 신경남 신부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프란치스코회 카푸친 수도회에 청빈, 겸손, 순명의 서약을 하며 입회하셨다. 나는 지난 10년 간 맡아 왔던 회장직을 사임하였다. 앞으로는 2004년부터 선교회를 지도해주신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님을 중심으로 이사회에서 선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2010년 5월부터 회장직 사임에 대한 고심을 하면서 지난 일들에 대한 감회가 새로웠었다. 무엇보다 지난 10년을 함께 동참해 주신 회원들과 봉사자들에 감사드



린다. 앞으로도 새로운 임원들과 함께 '백의종군' 하는 마음으로 선교회의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직책이란 것은 필요에 의한 형식일 뿐 성모님의 일을 하는데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성모님께서 각자에게 맡겨 주신 사명과 직책을 서로 지켜주고 협력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아름다운 자세라고 믿는다.

지난 10년 동안 기쁘고 행복한 그리고 보람된 일들도 많았지만 마음 아픈 일들도 많았다.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모함과 배신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중에 하나였다. '메주고리에 정신을 팔아 먹는 상인'이라는 말도 들었다. 한 인간의 인격과 명예를 철저히 파괴시키며 감당하기 어려운 비난을 주변에 퍼트리려는 일이 나에게도 엄청난 상처가 되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말로 해명하기 보다는 오히려 기다릴 뿐이다. 오히려 위선적인 그 영혼을 위하여 연민의 마음으로 기도할 따름이다. 신앙인으로서 진실을 왜곡하는 말과 거짓을 전하는 일은 분명히 10계명에 위배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각자의 몫으로 남는 것이기에 그런 일로 마음 상하고 시간을 소비하고 싶지는 않으며 더욱이 성모님의 메시지 전파의 사명이 중단 될 수는 없는 일이다. 선교회 한 봉사자님은 이렇게 조언을 해





주셨다.

"가까이서 보면 모든 것이 좁아 보입니다. 한 발 물러나서 크고 넓게 바라 보세요. 그러면 성모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나 역시 어려움들을 가장 확실하고 쉽게 해결하는 길은 성모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임을 지난 11년 동안 체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힘든 시간들이 하늘에 보화를 쌓아 두고 더 큰 축복을 받게 해줄 것을 믿는다. 권위주의와 물질만능주의에 젖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런 생각들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리는 일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는다. 단지 하느님께 대한 신뢰와 인내를 필요로 할 뿐이다. 아일랜드인의 속담은 성모님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성모님은 얼킨 실타래를 풀어 주시는 분이이다.'

2011년은 성모님께서 발현하신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발현 초기 성모님께서 평화를 말씀하실 때 눈물을 흘리셨다고 한다. 지난 30년이 메주고리예의 평화를 전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열매를 맺는 시기이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듯이 회개, 기도, 단식, 신앙의 가장 확실한 열매는 평화이다. 평화는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보게 해주기 때문이다. 메주고리예 성모님의 내적담화자인 엘레나는 평화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사탄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이 말씀하실 때는 평화를 먼저 느낍니다." 발현 초기에 대한 요조 조브코 신부님의 체험담이다. "성모님의 발현을 믿지 않았던 나는 성당을 비우고 산과 들로 몰려 다니는 사람들을 보며 한탄했습니다. 세상에... 성당의 감실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사람들은 무엇을 찾아서 저리도 몰려 다니는가? 그 때 십자가산 정상에 있는 큰 십자가에서 Mir, Mir, Mir라는 글자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평화, 평화, 평화'입니다. 성모님은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 평화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메주고리예는 더 이상 장소가 아닙니다. 거대한 평화의 흐름이고 영성입니다.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으로 또 하나의 메주고리예가 되어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을 전하십시오!"

성모님의 매일 발현의 목격증인 이반은 분명하게 말한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시간들은 대단히 큰 책임이 따르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이 물리적인 변화들을 보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서 성모님께서 그 오랜 시간을 왜 매일 오셨는지에 대하여 모두들 이해 하게 될 것이라고...

평화의 모후 선교회와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는 지역성의 한계를 초월하여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자는 메주고리예의 흐름과 영성에 동참하고 있다. (평화의 모후 50호 참고) 앞으로도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는 성모님의 목소리와 손이 되어 주님을 목말라하는 영혼, 삶에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고 어두움을 비추어 주는 빛이 되어서 값진 영적 보화를 발견하게 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가, 나에게 소중한 장소인 이곳에서 주고 있는 내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달라고 초대한다. 하느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이처럼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내가 주는 메시지를 사랑으로 실천하고 온 세계에 전해서, 미움으로 가득 차 평화가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강이 흘러들 수 있게 하기를 바란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가 되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되어서, 모든 이들의 마음을 그 빛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 너희를 초대한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 1995년 2월 25일 메시지 - M

## Queen of Peace Missionaries www.qpmm.org

발행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발행/편집인 : 박창득 몬시뇰  
 지도신부 : 박창득 몬시뇰 (뉴욕대교구)  
 자문위원단 : 김한기 신부, 요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이종하 신부, 백남국 신부, 웨인 와이블, 남기옥 (선교학 박사)  
 웹관리자 : 임 베드로, 박 어거스틴  
 편집위원 : 최미정, 남 미카엘라, 김성주  
 인쇄 : 동방인쇄출판

미국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 (610) 366-9612, Fax : (610) 366-9614  
 E-mail : qpmm.org@gmail.com

캐나다 1624 50 Avenue S.W., Calgary AB T2T 2V9 Canada  
 Tel, 403-288-0469 E-mail: jyleecan@hotmail.com

## "메주고리예? 메주가 고리에 달렸나?"

"너희가 내안에 머무르고 내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질것이다." (요한: 15.7)

59차 순례자 강 마리아

살다보면 예상치 못한 일로 인생의 행로와 목적지가 바뀌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사업때문에 며칠 머물게 된 LA에서 우연히 성령에 잡혀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여정을 체험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정신 없었던 첫날, 식당을 찾고 있던 중, 한글 간판이 있는 책방에 무심코 들어갔습니다. 출장을 가면 식당, 쇼핑몰, 은행과 차들을 보며 어떤 사람들이 사는 곳인지 가늠하느라 굳이 한국어 간판에 호기심 갖는 일은 없었으니까요. 영세 받던 날 이후 성물 가게는 처음인 저는 잠 들기전과 비행기 안에서 볼 책을 찾으려 물어 보았습니다. "이쪽의 책을 읽어 본적이 없어서 추천해주실래요?" "이쪽 이라뇨?" "저어~사실은 이십 년만에 돌아온 초보인데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잠시 나를 바라보던 그녀는 수북히 쌓인 책을 보고 머뭇거리며 저에게 5~6권 책과 '평화의 모후' 소식지를 주면서 무조건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한다고... 점심 식사 후 사온 책들을 훑어 보았습니다. '벼락을 맞았습니다.' '왜 천사들은 타락했을까' '메주고리예의 추수' '메주고리예의 메시지' ... 벼락을 맞다니 제목이 좀 교양이 필요 하구만... 천사가 이미 타락 했다구? 그럼 우린 가망이 없는거네... 어쩐지 세상이 험악해지드라니... 메주고리예?! 메주가 고리에 달렸나?

그날 밤, 메주고리에 책을 손에 든 저는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책을 저를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평화의 모후' 소식지도 읽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니!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어렵פות이 제가 그 곳에 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꼭 가고 싶었습니다. 사업 때문에 온건지 피정을 온건지 알수 없게된 LA 사건은 2010년 9월이었습니다. LA에서 돌아온 후 '메주고리에' 책을 5번 이상 읽었고 (중독성 있음) '벼락을 맞았습니다'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지를, '왜 천사들은 타락했을까'는 교만의 함정에 빠진 천사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신부님들과 신학자들의 책들은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도저히 알수 없을 만큼 크고 변함 없이 우리 곁에 계시다' 라고 말해줍니다. 다만 우리들의 혼란이 하느님 섭리안에 있을 때와 그 시간이 길어지면 사탄이 의심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개신교 신자 웨인 와이블은 "메주고리예의 메시지" 책을 통해 그곳에서 있던 여러가지 일들을 말해줍니다. 처음에 그는 성모님의 초대를 의심했으나 그 마을과 마을 주민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모님께 대한 확신으로 개신교 신자들에게 메시지와 묵주 기도를 전합니다. 책을 읽

##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 너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고 있으며 그 장소와 풍광들이 눈에 보이는 듯 살아 움직입니다.

2011년 3월 25일, 마침내 저는 제 59 차 메주고리에 순례단의 한 사람이 되어 JFK공항을 출발했습니다. 드디어 독일에서 갈아 탄 작은 비행기가 겨울 내내 읽고 또 읽어 낫설지 않은 지명 SPLIT 공항에 내렸습니다. 저는 처음 온 발칸 반도의 풍경이 궁금해 창문 밖을 내다 보며 가슴이 뭉클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모님, 제가 왔어요!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누군가 제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뒤를 보았지만 비행기 맨 끝 창가에 있는 제 좌석 뒤는 벽이라서 당연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 아니면 제가 무슨 착각이랴?... 지금도 제 어깨를 감싸주던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는데...

열 두명의 일행과 버스를 타고 메주고리로 향하는 길창 밖에는 꽃이 만발한 봄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이런 감정은 참 오래 간만입니다. 정말! 성지 순례가 이렇게 행복한 여행인지 알지 못했었습니다.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잔정이 없고 여인들을 많이 흠모하고, 인색한 그는 열혈 천주교 신자입니다. 주일미사는 빠지는 적이 없고 (심지어 크루즈 여행에서도 매일 미사 참석) 피로도 일년에 두 번은 꼭 갑니다. 그런데 저는 그를 보면 성당에 가고 싶은 마음이 좀처럼 들지 않습니다. 어느 날 미사에 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나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하느님 만나게 좀 그렇겠어...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미사에 꼭 다니고 하니 이 정도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 어느 새 메주고리에 야고보 성당이 보입니다. 사진에서만 보고도 흠뻑 사모하게된 성당, 성모님이 당신의 본당이라고 말씀하신 곳, 주민 사백명인 동네에 천명 규모의 성당을 지은 황당한 내력, 경찰이 없는 마을, 긴 전쟁중에도 총탄 피해 하나 없이 보존된 마을, 성모님 옷자락속 요람... 가슴이 쿵쿵합니다. 숙소 발코니에서 보니 왼쪽으로 발현산에 계신 하얀 성모님, 오른쪽으로 십자가 산 정상에 있는 큰 십자가가 보입니다. 저는 그날 밤 땅과 하늘이 맞닿는 곳! 천상의 모후이신 성모님께서 직접 오시어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장소에 초대 받은 것이 꿈만 같아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행 모두 발현 산에 기도하며 올라갔습니다. 마침 사순절이었고 바다 건너 이태리에서 온 수많은 순례자들로 가득한 그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모님께서 처음 발현하신 돌 투성이 산은 아직 3월이라 이제 막 들꽃들이 거친 돌들 사이에서 빼꼼히 목을 내밀고 있습니다. 돌 사이에 쭈그리고 앉으니 가슴 깊은 곳에서 감사 기도가 나도 모르게 솟아 나옵니다. "성모님,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와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진한 장미 향기가 스쳤습니다. 누가 이런 곳에 향수를 뿌리고 왔을까?... 주위를 살펴보는 순간 향기가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기도의 여운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 났을 때 다시 진한 향기가 났습니다. 그 장미 향기는 한아름 장미꽃 다발에서나 맡을 수 있을 만큼 진했습니다. 숙소로 돌아 가는 길 주변에는 이제 막 봄이 온 듯 하고 벌판에는 가지치기로 몸 단장당한 포도 나무들이 가지런히 묶여 있었습니다.

오후 6시에 시작하는 야고보 성당의 저녁 전례 참석은 하루 일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미사 시작 한 시간전부터 목주 기도를 하는데 각국에서 온 순례자들이 각자의 언어로 하는 목주 기도는 은총이 가득합니다. 그동안 불러 온 성가는 너무 화려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단순하고 청아한 성가는 마음을 열어 줍니다. 제단에는 세계 곳곳에서 오신 신부님들로 가득하고 미사가 끝나면 은혜로운 성시간이 시작됩니다. 메주고리에는 높은 건물 하나 없는 조용한 시골 동네인데 미사 때가 되면 성당은 늘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성당 밖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일행들도 한번 쬐은 거를 수도 있을텐데 숙소에 남는 사람은 하나 없고 모두 목주 기도 시작 훨씬 전 부터 성당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일년 365일 하루도 빠짐 없이 매일 3시간 이상 기도하는 마을입니다.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숙소로 돌아 올 때쯤이면 이미 해가 저물어 찬 바람이 부는 밤길이 됩니다. 낮엔 팔을 걷어야 할 정도로 덥지만 해가 지면 돌변합니다. 뜨겁고 매운 국물이 간절했던 밤이었습니다.

십자가 산에 오르는 날, 이른 아침을 먹고 일행들을 기다리며 태양을 바라보던 우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침 해가 초록색, 보라색, 검정으로 색을 바꾸며 돌다가 앞으로 쭉 달려오더니 훌쩍 뒤로 물러 납니다. 태양



## 성모님은 저희들의 아픔을 다 들으시고 가슴으로 기억해줍니다

이 춤을 추듯 빙글 빙글 돌아 갑니다. 태양 주위에는 눈부신 오렌지색이 커다란 원을 그리고 돌면서 마을에 성수를 뿌리고 있었읍니다. 웨인 와이블씨가 책에서 말한 그대로입니다! 세상에...! 십자가 산에 올랐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 가신 1900 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들이 남녀노소 없이 물과 시멘트 등의 자재를 등을 메고 올라가 세웠다고 합니다. (1933년) 발현 목격증인들은 성모님께서 이 십자가 산에서 동이 틀 때까지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십자가 길에 세워진 14처에는 뇌종양 환자였던 이태리 조각가가 치유받고 봉헌한 청동상에 예수님과 성모님의 고통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돌투성이 가파른 십자가 산을 오르면서 진정한 십자가 길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성모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녀들이 이 먼곳까지 찾아 와 산을 오르며 기도 하는 것을 가룩하게 여기시는 어머니께서 주시는 선물이지요.



처녀 마리아는 참 황당 했을 것입니다. 약혼자가 있는데 임신을 하다니... 조용히 파혼 하려는 요셉에게 천사가 마리아는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의 아들로 세상에 태어난 아기는 마구간 구유에 눕혀 집니다. 어느새 다 자란 아들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간신히 찾은 아들은 어머니에게 왜 하느님의 집에 있는 것을 몰랐냐고 합니다. 방방곡곡을 떠돌며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던 그 아들이 어느 날 뽕뽕 묶여 잡혀가더니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비통해 하는 어머니의 울부짖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모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울었읍니다. 지금도 그 산에 오르는 순례자들은 아들의 죽음을 받아 안은 어머니의 고통이 마음에 담아져서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 너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발현초기에 소녀이던 비즈카는 이제 40대 중반입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 그녀는 하느님 사랑이 가득한 성모님의 메시지를 순례자들에게 전해줍니다. 한국어와 영어 통역이 끝날 무렵 수백명의 순례자들 사이에 갑자기 장미 향기가

가득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너도? 너도? 눈짓으로 확인하며 놀라웁고 기뻐서 어쩔줄을 모릅니다. 성모님 발현 초기에는 아픈 이들의 치유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성모님의 발현을 보고자 종교에 상관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합니다. 성모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종교를 나눈 것은 너희들이다. 하느님 앞에서는 다 같은 자식들일 뿐이고 누구나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단다." 이 나라 가톨릭 신자들

은 이슬람의 500년간 통치하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읍니다. 세례식을 위해 몰래 잠입한 사제가 흑시라도 공산당원들에게 발각되면 그 자리에 있던 주민들도 다 함께 죽임을 당했답니다.

다음 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모님이 계신 티할리나에 갔읍니다. 티할리나 성당에 도착하니 마당에는 봄 기운에 쌓여 붉은 앵두꽃이 만발하고 수녀님들이 꽃밭에 거름을 주고 계셨읍니다. 일행들은 신비스러운 빛을 머금고 계신 성모님 사진을 찍느라 모두 바빴읍니다. 성모님은 밤새 성인들이 하늘에서 단채로 내려와 다듬고 간듯이 아름다우셨읍니다. 마당엔 작은 차고 만한 창고가 있는 데 이슬람 치하에서 처음으로 지은 경당이라고 합니다. 열 사람 들어서니 딱 찹니다. 그때 여기 왔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감격했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만감이 교차합니다. 세상에는 빈 교회가 너무나 많은 데... 맨하탄에 있던 한 교회가 부동산 회사에 팔린 후, 디스코 텍으로 개조해 명성을 날렸읍니다. 높은 천장 때문에 음향과 조명 효과가 훌륭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월 2일은 목격증인 미리아나가 성모님 발현을 보는 날입니다. 우리 일행들은 그녀와 성모님을 가까이 보고 싶은 마음에 겨울 옷, 담요, 의자와 뜨거운 커피를 준비해서 이른 새벽부터 발현 산으로 향했읍니다. 수 많은 순례자들이 묵주 기도와 성가를 부르며 미리아나를 기다렸읍니다. 우리는 한 순례자가 차캐오처럼 나뭇 가지에 올라가 있는 건너 편에서 기다렸읍니다. 저는 하늘을 향해 저절로 기도를 드리며 이 곳에 불러 주심을 감사드렸읍니다. 미리아나가 와서 묵주기도를 시작하고 잠시 후, 성모님이 오셨읍니

다. 사람들은 모두 침묵하며 성모님의 현존하심에 잠깁니다. 비록 아무 것도 보지 못했지만 성모님께서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고 계심이 마음 깊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던 상처와 근심이 어느새 사소한 일들이 되어 사라지고 넘치는 평화가 마음에 가득해집니다. 이곳은 정말 이상한 일들 투성이입니다. 우리들은 다시 포도밭 사잇 길을 걸으며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가까워지는 것을 너무나 아쉬워합니다. 들에서는 봄 흙 냄새가 진동하고 동네 사람들은 재배한 포도주와 묵주, 레이스로 만든 테이블보를 팝니다. 신부님께 드릴 와인 두병 샀더니 반지 모양 묵주를 거저줍니다. 튀긴 생선과 쇠고기 양배추 찜이 차려진 점심 식탁에서 이제는 가족이 된 일행들과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아드리안 바닷가를 따라 메주고리예를 떠났습니다. 성모님 품에서 지낸 천국에서의 산책이었습니다. 호텔 배란다에서 지척에 보이는 바다와 두 개의 커다란 풀을 보며 열흘동안 방을 같이 쓴 마가렛따 자매는 신혼 여행 때 보다 더 좋다고 난리입니다. 제가 영혼의 신혼 여행이라고 이름 지었더니 자매님이 흡족해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싫었습니다... 다음 날 열 두명의 우리들은 각자 흩어져 다시 세상으로 왔습니다.

메주고리예를 떠나 오니 그 동안 넘치는 물질 문명에 살고 있었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래서 곧잘 그 물질 만능의 강력한 물살에 밀려 영혼이 떠내려 가기도 합니다. 물질과 영혼은 정 반대 소속당이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구름 사이로 지나가는 해를 바라 보니 빙빙 돌며 흰색으로 바뀌어 번쩍거립니다. 제 눈이 잘못된 것인지 시차를 두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고리모양이 된 하얀 성체는 메주고리예에서 저를 따라 왔나 봅니다. 태양의 눈부심이 사라진 하늘을 바라보며 성체 조배를 하고 기도와 묵상을 하는 너무나 행복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변에 메주고리예 순례 체험담을 전했더니 한 자매님은 30여년 피우시던 담배를 끊었습니다. 앤 자매님께 축복을! 그 분은 지금도 제게 매일 전화해서 말합니다. "나 오늘도 담배 안피웠다~" 저는 성모님이 기뻐 하실꺼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도 사실 와인을 좋아해서 순례 중에 껌마와 비비나에게 혼났었습니다. 점심에도 한잔마시다 깜박 잠이 들어 몇번 저녁 미사에 늦었습니다. 일행들이 "마리아, 다 좋은데 좀 덜 마실 수 없어?" "없는데..." "그럼 사순절 동



안만이라도 끊어!" 저도 그 후부터 부활절까지 와인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5월 토요일날, 묵상과 미사를 하고 하얀 성모님상 앞에서 묵주 기도를 하는 피정에 참석 했습니다. 수선화와 튤립이 아름다운 정원 꽃밭에서 성모님을 다시 뵈니 반갑고 기뻐서 "성모님 저 여기에 왔어요." 인사를 드리고 묵주 기도를 할 때 또 장미 향기가 스쳐 갑니다. 너무 짙은 향기에 숨이 막힐정도로... 사순절에 와인을 끊었더니 저를 사랑하시는 성모님이 상을 주시나 봅니다. 그런데 제가 염치가 없습니다. 기도문이 너무 많아 아직 다 외우지도 못했고 성인들 이름도, 미사의 뜻도 어려워서 아직 조금 밖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십년간 집을 떠나 있다 돌아온 영적인 문맹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제 행복이 성모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메주고리예... 고향을 찾아 온 아들 딸들에게 선물을 잔뜩 쌓아 놓고 한 보따리씩 안겨주시는 성모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분은 자녀들의 아픔을 마음에 새기시고 가슴으로 기억해주시는 우리들의 엄마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알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빨간 머플러를 매고 포르쉬를 타는 할머니로 늙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변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성모님께 여쭙어 보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가요?" 지난 수요일 새벽 4시, 성모님께서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두 팔을 활짝 펴시고 미소를 지으시는 어머니의 모습이셨습니다. 성모님 발현 30 주년이 되는 2011년에는 성모님은 더 많은 선물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성모님이 보내주신 선물이 벌써 제 삶의 중심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는 예수님을 제 삶의 중심에 모시고, 보내주신 선물상자가 무엇인지 하나 하나 열어보면서 어머니와 함께 살아 가렵니다. 사랑하는 성모님, 감사 합니다!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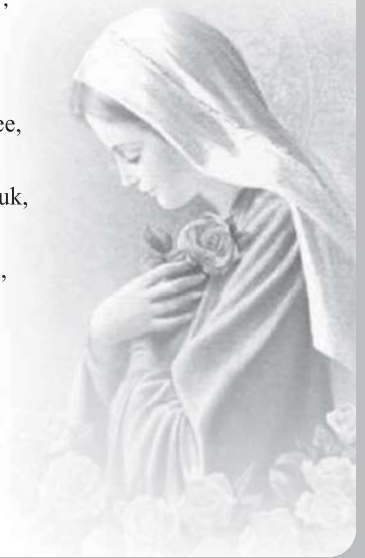
## 십시일반 후원회원님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강바오로, 강선주, 강찬구, 강프란시스, 구경숙, 광복화, 권글라라, 권금옥, 김건일, 김금성, 김노아, 김테레사, 김로사, 김마테라, 김마리아, 김명생, 김명숙, 김세록, 김소란, 김소영, 김아네스, 김연분, 김영서, 김영애, 김영옥, 김영주, 김옥희, 김왕주, 김원경, 김원희, 김절자, 김정연, 김주희, 김학실, 김혜숙, 김혜자, 김혜정, 김화용, 김효안, 김희숙, 남순자, 남영현, 노마리아, 류기열, 문로사리아, 문방자, 민정숙, 민헬레나, 박말다, 박병칠, 박선영, 박숙진, 박안나, 박영순, 박영실, 박영화, 박정자, 박정미, 박청희, 박혜선, 백안셀모, 서남숙, 서테레사, 서애자, 서정열, 서춘애, 성순희, 송미, 송소인, 송정순, 신순덕, 신숙영, 신현철, 신혜경, 실비아, 심세실리아, 안요안나, 양유스티나, 엄봉화, 엄토마스, 오글로리아, 우송지, 원명희, 원영주, 유광문, 유국현, 유규희, 유미연, 유미영, 유베로니카, 유정선, 유정순, 유제영, 유해순, 유혜란, 윤마리아, 윤명자, 윤운선, 윤종환, 윤호실, 이경호, 이계숙, 이동우, 이로서, 이명진, 이마리아, 이미영, 이민정, 이민선, 이상순, 이상환, 이성숙, 이소피아, 이수지, 이순세, 이순자, 이엘리자벳, 이영분, 이윤영, 이은경, 이은숙, 이은정, 이은희, 이의정, 이인영, 이정순, 이재순, 이재열, 이진민, 이카타리나, 이형택, 이혜자, 이희자, 임미카엘, 임주자, 장금실, 장종순, 장재현, 전무생, 전현숙, 정금희, 정순자, 정영, 정영식, 정의교, 정인복, 정재향, 정주화, 정현지, 정희순, 조동진, 조병희, 조안나, 조용옥, 조은자, 조크리스티나, 조희원, 주숙은, 주정숙, 지니 김, 진도미니카, 진은필, 차수미, 채경옥, 최경숙, 최금순, 최동숙, 최루시아, 최테레사, 최석희, 최지희, 최희봉, 표상순, 한경렬, 한기남, 한순희, 한영, 한정애, 허마리아, 허성용, 혜영, 홍성숙, 홍옥선, 황계자, 황계희, 황옥희, 황지희, 황혜정, 익명

Cynthia Ziegmann, Eileen Cho, Young Shin, Chang, Myung Hwan, Shim Nal Lee, Myung Ok, Lee, Se Jong Jin, Sam Sun, Chang Myung Hwa, Chang Jung Gue, Tak U. Lee, Young Y. Han, Jung Ryou, Kyung Yun, Jin Cho, Paul Lee, Henry Ji, Henry Yerger, Yes Cleaners, Jung Soon H, Lisa Rlgoni, Yoon Lee, Jae Kang, Joe Wilinski, Chong Suk, Dardy, Suwon H. Park, Jae Kang, Gerald & Yon Johns, Lee Mary, Jong S. Song, Silvia Siemers, Yun Kim, K. Larcenaire, Judy Chi, Our Lady of Hope Catholic Church, Insuk Mullins, James Russel, Joanna Bogusky, Nansoon Buffington

- 가족과 친지들의 주소를 선교회로 보내주세요.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를 보내드립니다.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 (610) 366-9612. Fax : (610) 366-9614  
E-mail : qpmm.org@gmail.com / 홈페이지 : www.qpmm.org



### 용서하는 사랑의 힘

"마음을 밝혀 주시는 주 예수님,  
주님은 이 세상을 단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당신을 통해 모든 인간을 구원하고 화해시키러 오셨습니다.  
용서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불처럼 타오를때면,  
시련으로 아픈 마음조차 다시 생기를 얻게 됩니다."

로제 수사